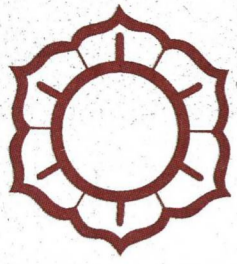


불교총지중은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옴마니반메
흠을 본존으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
교화를 표방한 재가종단입니다.



총지중보

2004년
9월 1일
수요일
제59호

이 달의 종조법설
부유할수록 더욱 근면하고 보시해야 하며 지위가
높을수록 겸손해야 할 것이며, 실천하자면 남의 허
물을 보지 말아야 하며, 선을 행해도 고자세는 아니
되며, 실(實)다워도 허(虛)한 것같이 해야하며, 있
어도 없는 것 같이 해야하며, 알아도 모르는 것 같
이 해야 하는니라

발행인 : 우승 편집인 : 김용주 인쇄인 : 김준배

www.chongji.or.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사항을 준수한다. 구독신청 : (02)552-1081

한국밀교 중흥의 역사와 숨결이...

10월경, 총지중 『종조기념관』개관 예정



「종조기념관」에 총지중 창종주 원정 대성사님의 유품과 자료를 전시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다.

총지중(총리원장 우승)은 오는 10월 중순경 창종주인 '원정 대성사'를 기리는 『종조기념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2002년부터 종단제작발사로 진행된 종조기념관은 2년간의 작업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간 법장원에서 자료수집과 분류 작업을 해왔고, 내부시설을 총리원 건축담당 중무원이 직접 맡아서 진행해 왔다. 특히 모든 작업을 종단 자체적으로 해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개관을 앞둔 종조기념관은 본관에 영정을 모신 제단이 마련되어 있고, 제

단 뒷 공간에는 종조님의 유품과 창종 당시의 각종 자료사진과 종조님의 유고(遺稿), 참고문헌 등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전시장 중앙에 창종 초창기 형태의 본존(本尊)과 불단(佛壇)이 그대로 보존·전시되어 있어 교도들에게 종단의 역사와 종조님의 숨결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유품정리 및 전시과정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법불교'편찬원고 '진각유지재단 정관 초안' '한일불교 한국대표 진각종 방일보고서' 등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 진각종 총인으로 재직

하면서 모든 역경작업(譯經作業)과 종단체제를 확립했던 근거자료가 발견되

었다는 점이다.

또한 지금까지 발견되지 못했던 '사중수법용 사색건' '사중수법용 사색법의 정진결과보고서' '정진일지' '원경(圓鏡)' '준제관음상' '양계만다라' '아자(阿字)와 육합상(六合相)' 등 종단의 교상과 사상관련 자료들이 전시되었다.

이번 종조기념관 건립에서 유품정리를 담당했던 법경 사무국장은 "종조님의 유품과 자료들을 전시하는 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자료들을 종단의 교상과 사상의 연구자료로 삼고 특히 종조님에 대한 연구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총지중은 「종조기념관」 개관 불사를 통해 종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각종 세미나를 통해 원정 종조님의 교상과 사상 연구에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산 덕화사 신축공사

총지중(총리원장 우승)은 8월 31일 전담건설위원회를 소집하여 부산시 덕천동에 위치한 덕화사를 9월말경 신축하기로 결정하였다.

덕화사(주교 대원)는 총기11년(1982년) 부산 덕천동에 주택을 구입하고 불단을 개설하여 하정 정사가 초대주교로 재임 한 후 현재 대원정사, 정인화 전수가 교화하고 있으며, 교도수가 급증하여 교세가 활성화되고 있어 자성 일이면 수행공간이 부족하여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었다.

작공될 덕화사는 300평의 대지에 연건평 342평의 3층건물로 예상공사금액 15억 ~ 20억, 10개월동안 건설업체에 의해 도급으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원구조는 한옥식으로 3층에 서원당, 2층에 사택, 1층은 식당과 휴게실로 구성되어 전통적인 양식으로 조성된다. 사원 신축에 있어 덕화사 교도는 "몇 년 전부터 교도수가 증가하여 자성 일만 되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장소가 협소하여 불편한 점이 많았으나 사원이 신축됨으로 인해 감회가 무량하며 더 많은 보살들이 찾아와 불공하여 해탈할 수 있는 밑보따리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종단의 현황과 정책자문

종정자문위원회개최

총지중 효강 종령은 8월 12일 총리원에서 전 총리원장 총회지사를 비롯하여 법장화, 원봉, 해산, 송하 등 기로 스승으로 구성된 종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종정의 전반에 대한 의견수렴과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종정자문위원회는 종령이 종단의 운영과 사법을 관장함에 있어 원로스승들에게 지문을 구하는 기구로 종단의 방향과 정책에 자문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이날 회의에서 효강 종령은 "시대가 급변함에 따라 본 종단의 각종 제도와 의식, 불단장엄 등 수행체계와 의식에 대한 변화를 추구할 때만이 교화가 활

성화 될 수 있으며, 구시대적인 사고와 생각을 버리고 개혁과 변화로 종단의 종풍을 바로 세우자"라고 밝힘에 따라 종정자문위원들은 "종령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함과 동시에 종단의 종풍을 진작시킴으로써 종단의 중흥을 기하고, 새로운 도약의 길을 모색하자"고 밝혔다. 특히 이날 주요의제로 거론된 종단의 불단장엄화에 대한 종정자문위원들의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종단의 변화를 모색하고 발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사법을 관장하는 종령의 의지를 존중하고 지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대의포교활동 강화로 종단위상 격상

효강 대종사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 "지혜의 샘" 출연



총지중 종령 효강 대종사가 불교방송에 출연하여 총지중의 교학과 수행체계를 설명하며 종단의 대외포교를 강화하고 있다.

총지중 종령 효강 대종사가 7월 28일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에, 8월 30일부터 9월 26일까지 부처님의 영원한 진리의 경구를 계승하는 "지혜의 샘"에 출연하여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법음을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단을 홍보하였다.

효강 대종사는 "무명을 밝히고"에 출연하여 앞으로 종단의 운영방향에 대한 정책과 총지중의 교학과 수행체계를 소개하였으며, 특히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밀교에 대해 "밀교는 비밀불교의 악칭

으로써 비밀, 심오한 여래의 내음을 설하는 진실법문의 가르침을 말하며,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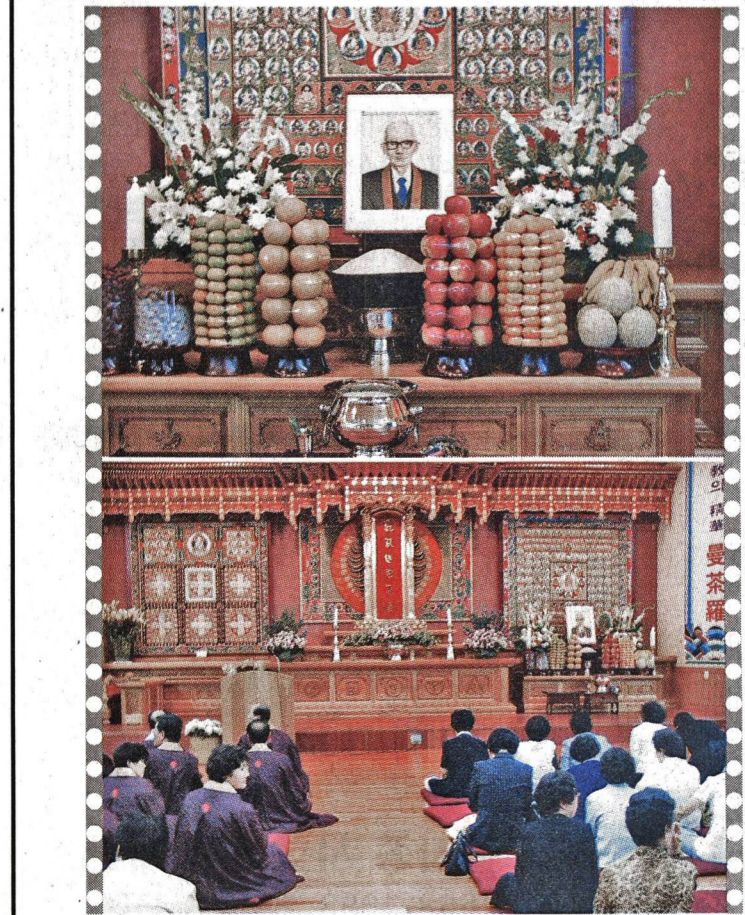
죽비소리
깨끗함과 더러움을 구별 못하는 별래를 사들이는 미워하듯 깨끗함과 더러움을 분별 못하는 사문을 성원들은 격정하대 세상의 시끄러움을 버리고 천상으로 가는 때는 개행이 가장 좋은 사다리이니라.
그러므로 계를 파한 이가 남의 복권이 되려하는 것은 날개 부러진 새가 거북을 등에 업고 나는 것과 같다. 자기의 허물 벗지 못하면 남의 허물도 벗겨줄 수 없나니 어찌 계행 없이 남의 공양을 받을 수 있으리.
『법심수행장, 중에서』

러한 가르침은 불교의 교설중에서도 가장 심오한 것으로 널리 대중에게 알려져 있으며 성불 내지 해탈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신비성, 상징성, 의례성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신, 구, 의 삼밀관행을 통하여 법신불인 비로자나 부처님의 비밀의 세계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즉신성불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정통밀교 종단으로써의 위상을 재고하였다.

또한 "지혜의 샘"에서는 갈등과 증오, 분노로 고민하고 신음하는 일반인들에게 생명수 같은 부처님 진리의 경구를 소개함으로써 위안과 감로수를 제공하였다.

한편 총지중은 9월부터 법장원 연구원들이 불교방송에 출연하며 교리강좌를 실시하고, 10월에는 우승 총리원장이 "지혜의 샘"에 출연하고, 6개월 동안 총지중을 홍보하는 광고를 내보내기로 하였다. 또한 불교텔레비전의 무상사에서 법문을 할 예정이다.

라 여간 어떠한 이유에서든 정부는 우리나라 고대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중국정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것은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중국의 동북공정 주장대로 하면 고조선의 단군왕검도, 고구려를 개국한 동명성왕 주몽도, 중원대륙을 호령하던 광개토태왕도, 수나라 30만 대군을 물리친 살수대첩의 명장 을지문덕장군도, 발해를 개국한 대조영도 모두 중국 역사속의 중국인이고 평양과 한강이북도 예전에는 중국영토이며 우리 고대사에서 고구려 신라 백제의 삼국시대가 아니라 신라 백제의 양국시대라고 해야 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인가!
자국의 문화가 세계 최고이며 모든 것이 자국을 중심으로 세계만방에 퍼져야 한다는 우월감을 가진 중국이 남의나라 역사를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다니, 지금 중국정부에게 후인무치(厚顔無恥)라는 사자성이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해 볼 것을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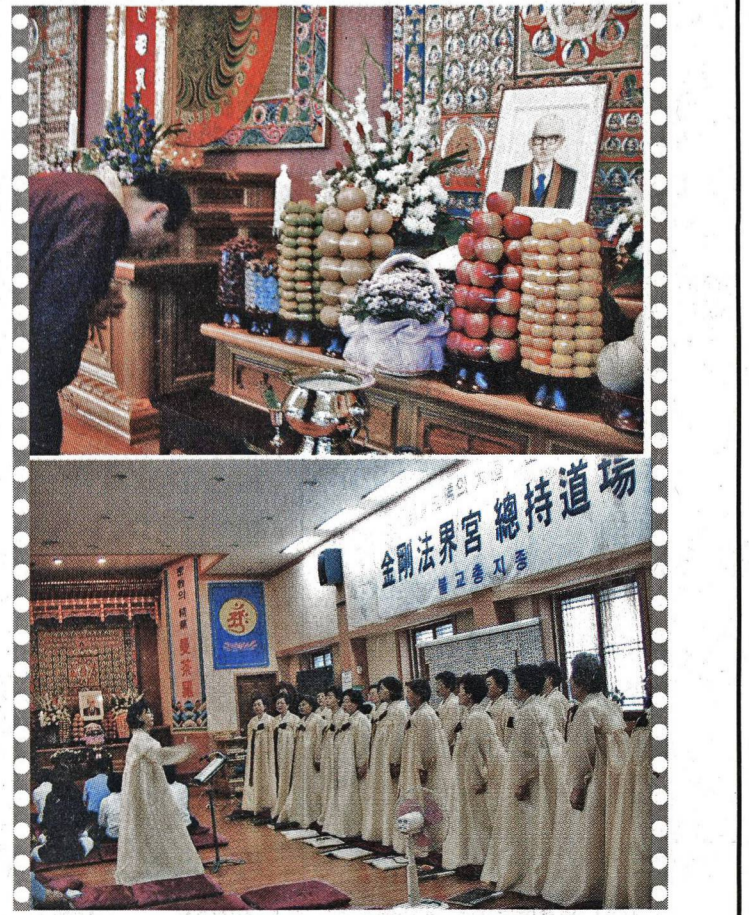


종조 멸도절 추선불사

"법신비로자나불을 교주로 하고 육자대명왕진인 옴마니반메흠을 본존으로 대승장엄보왕경과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을 소의경전으로 하고 태금양계의 모든 경계를 보조경전으로 하며, 삼밀과 육행을 수행의 덕목으로 하고 '당상즉도'와 '색심불이'의 원리에 입각하여 복지쌍수로 사리를 구현함으로써 현세정화와 즉신성불의 윤원대도를 이루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총지중의 중지으로써 총지중을 창종하신 원정 대성사님의 멸도절 추선불사에 많은 교도들의 동참 바랍니다.

- ◆ 일 시 : 총기33년(2004년) 9월 8일
- ◆ 장 소 : 전국 각 사원
- ◆ 서울·경인 교구는 총지사서에서 오후 2시30분에, 지방은 각 교구별·사원별로 추선불사를 병행함



불교총지중
The Buddhism chongjijong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 2동 776-2 전화 : 02)552-1080~2
전송 : 02)552-1082 http://www.chongji.or.kr

사설

납골당 건립에 대하여

그동안 불교계는 젊은 불자들이 양성하지 못해 신도 분포를 보면 대부분이 고령 불자들이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양상은 우리 종단도 예외는 아니다. 즉 고령의 교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후 관리를 종단에 의탁하려는 교도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 종단에는 고인의 유골을 모실만한 설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후에는 영가를 다른 종단의 사찰에 모신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한 불자들 가족 중에도 우리 종단이 납골 시설이나 영가를 모실만한 설비가 이루어진다면 당장이라도 우리 종단 시설로 옮겨오고 싶다고 하는 교도들이 많다.

영가를 모실 납골 시설에 대한 요구는 창종 초기부터 절기차게 이어져 왔지만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사태는 모든 이들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우리 종단의 특성상 납골 시설에 필수적으로 부가되어야 할 영식전도의 방안과 이에 따른 불상 봉안 등의 문제들이 난마처럼 서로 얽혀 있어 쉽사리 그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종단 혁신을 바라는 신임 종령이 추대되었고 총리원장과 집행부의 개혁의지가 확고한 만큼 모든 난관을 돌파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고령의 교도들이 태반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상 납골당 건립은 시급하다. 또 앞으로의 지속적인 교도관리를 위해서도 영가를 편하게 모셔주는 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일본의 불교는 영가관리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일정 수의 신자들을 확보하게 된다고 한다. 다른 어떤 복지사업보다도 영가를 모실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화급한 사안인 만큼 이에 따른 방침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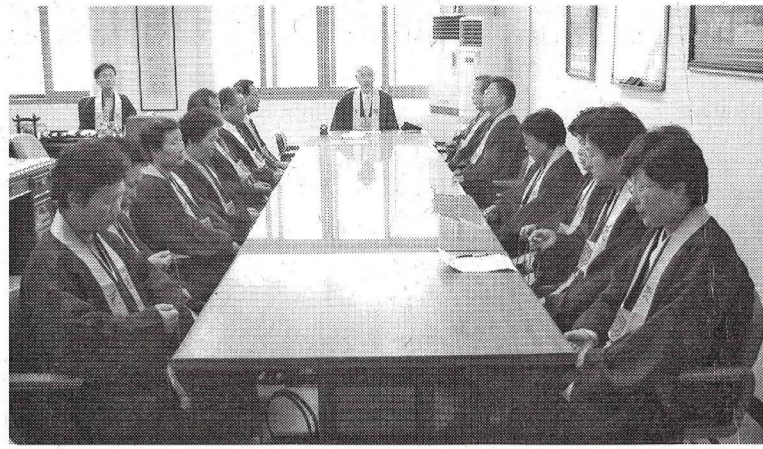
먼저 제안할 것은 납골당이라는 역할을 살피고 그 이름은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극락사', '미타사', '정토사' 같은 이름들도 좋고 아니면 '서방기념관'이나 '정토기념관' 등으로 이름을 붙인다면 납골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벗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의 납골당은 도심 가운데에 설립되어야 한다. 즉 도심 가운데에 영가를 편히 모실 수 있는 사원을 건립하는 것이다. 도심에 영가를 모시면서 자주, 그리고 편하게 고인을 추모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일반 대중이 부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도심에 영가를 모실 수 있는 사원을 건립함으로써 우리 총지종의 교도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영가를 모셔줌으로써 장애는 총지종의 교도가 되도록 인연을 심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도심지에 영가를 모실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는 데에 고무적인 한 가지 사실은 예전과 같이 유골을 모시면서 주위에 혐오감을 주는 대신 유골을 사리 형태로 만들어 봉안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었다고 한다. 어떠한 유골이든지 고온에서 화학처리를 하면 영롱한 사리의 형태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인데' 이러한 '방법으로 유골을' 모시면 냄새도 나지 않을 뿐더러 보기에도 좋고 보존을 오래할 수 있어 유가족들이 이를 수시로 참배하고 추모의 정을 되새길 수 있을 것이다. 뒷 층에는 영식 전도 전문 도량을 개설하고 사리 형태의 유골을 다른 층에 가지런히 모신다면 납골당을 겸한 사찰 형태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오염탑이나 불교관련 조형물 등을 정원에 배치하고 휴식 공간을 마련해 준다면 유골을 모실 곳이 음침하고 꺼려지는 장소가 아니라 고인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친근한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혐오의 어떤 사찰에서는 화장을 유도한 다음 일반 대중에게도 대규모의 불로 만든 납골탑을 세워 또 다른 공해를 유발하고 있는데 앞에서 제시한 이런 형태의 납골 방식은 공간도 적게 차지할 뿐더러 환경 오염 방지도 적절한 방법이 될 것이다. 다른 종단 보다 앞서가는 장례문화의 선구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 종단이 하루 빨리 영가를 위한 시설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관음학사(동해중)임원선출

제89회 임시 중앙총의회 개최



◇중앙총의회 중앙위원들이 종단의 중요 사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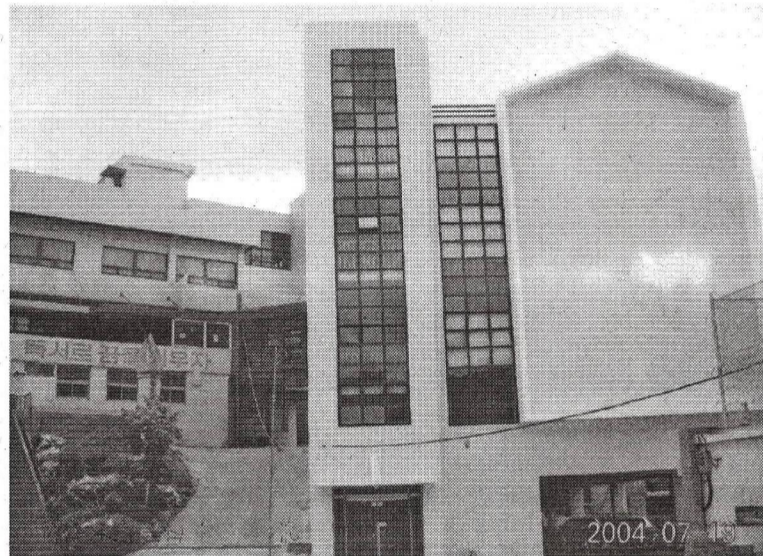
총지종 중앙총의회(의장 의강)는 8월 31일 총리원에서 제89회 임시 중앙총의회를 개최하여 결원인 관음학사(동해중) 이사에 지성정사, 강경중(동해중교장), 경원정사들, 으로 대두된 법황사, 흥국사, 관성사, 백월사 사원의 현공불사, 교도의 현황문제를 다루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총의회 의장 의강 총사는 "복정, 수성 대종사의 연이은 입적으로 인해 종단 내부적으로 대두된 법황사, 흥국사, 관성사, 백월사 사원의 현공불사, 교도의

의 수명관정수계, 종조전 건립 등 많은 사안들이 산적해 있어 그에 대한 집행부의 정책방향과 대안을 청취하였으며, 앞으로 종단의 교화 활성화와 도제양성, 청정수행도량 건립을 위해 중앙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우승 총리원장은 "교도의 수명관정수계는 11월에 봉행하고, 새로 신축한 사원의 현공불사는 강공전에 해결방안을 논의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종조전 건립불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강공기간인 10월 중순경 불사를 봉행하기로 하였으며, 추계강공은 강공과 회의를 분리하여 10월12~14일까지 사회복지재단이사회, 원의회, 총의회, 승단총회를, 10월 18일~21일까지 강공을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앞으로 효강 종령님의 뜻을 받들고, 중앙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단의 발전을 위해 매진하겠으며, 종단의 발전과 교화활성화를 위해 중앙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적인 의견제시를 주문한다."고 말하였다.

총지종 종립 동해중 특별실 마련

다양한 특별활동과 체육활동



◇총지종 종립 동해중학교에 5층 건물을 증축하여 모듬실, 과학실, 소강당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정보화 및 정서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총지종 종립 동해중학교는 지난해 학교 인근 부지 159평을 매입하고 5층 건물을 증축하는 공사를 착공하여 7월말 4층 공사를 마무리하고, 모듬실(어학실), 과학실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특별활동과 자유로운 과학탐구의 공간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완공된 특별실 공사는 재단에서 3억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 및 부대경비 1억 1천만 원이 만원을 합하여 총 4억 1천만 원을 투입했으며, 교육청으로부터 건공공사비 7억 1천만 원을 지원

받아 4층 공사를 마무리 하였고 지난달 의강 동해중학교 이사장과 강경중 교장선생이 부산시 교육청을 방문하여 5층 소강당 증축에 필요한 경비 5억원의 지원을 요청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모듬실(어학실)은 빔프로젝트, 전자철판, 유무선마이크, 반원형 탁자와 컴퓨터등 첨단장비를 구비하여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어학과 정보교육을 실시하며, 과학실에는 2개의 교실을 마련하여 탐구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고, 미술실을 마련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였다.

또 5층에 소강당이 마련되면 연극, 특별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됨에 따라 7차 교육과정에 적합한 정보화교육과 정서교육을 실시하게 될 것이다.

이번 특별실 공사로 인해 동해중학교는 교육여건과 환경을 보다 한 차원 고양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알림방

- 종조멸도절 추선불사가 9월 8일 전국 사원에서 봉행됩니다.
- 사회복지재단이사회, 전당건설위원회, 중앙총의회가 8월 31일 총리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총지종 총리원장이며, 국공사 주교인 우승 정사님의 막내딸 황희정양의 결혼식을 10월 2일 오후 1시 30분 대구시 문화체육관에서 올립니다.

총지불교대학의 현황과 활성화방안

총지불교대학은 총지종 스승 및 교도들에게 불교와 밀교에 대한 교리와 수행체계를 교육할 목적으로 총리원 건물에 강의실을 마련하여 1997년에 개원하였다. 그러나 개원 후 잠시 동안 불교교양대학형태로 운영되었다가 종단원 후 현재는 스승님들의 강공과 회의장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 라는 말처럼 교육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 예로 지리적으로 아주 작은 한국이 세계의 무대에서 자리를 잡으며 경제적 도약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굶어 죽더라도 지식들은 좋은 대학에 보내야 한다."라는 부모님들의 뜨거운 교육열 때문이었다.

불교계에서도 포교가 활성화되고 교도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사찰의 경우도 신도가 되기 위해서 2년간 사찰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해야만 하며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신도와 승직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신도들은 올바른 교리공부와 수행실수를 통해 불교의 사상과 교상을 확립하고 확고한 신앙심을 가지므로써 자신의 종교관을 정립하게 된다.

또한 승직자들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수행을 통해 신도들에게 신행상담과 이품을 어루만질 수 있으며, 중생을 제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

이렇듯 교육은 한 조직체의 발전을 기할 수 있으며,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교양을 습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정부 및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단체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강화하고, 신규직원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구성원의 일원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하고 있다.

그러나 총지종은 총지불교대학의 역할이 상실됨으로 인해 승직자 및 교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

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종단내에서도 매년 강공때나 회의, 각종 소모임에서 인재양성과 교육체계 확립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시급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정작 구체적인 실행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문제점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총지종의 앞날이 총지불교대학의 활성화와 교육체계의 확립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총지불교대학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우선 종단원 교리강의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운영에 적합한 담당자를 채용하여 교육 전담을 전담해 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해 해야 한다. 또한 총지종 교도와 승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체계를 정립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총지불교대학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불교계에서 조계종을 비롯하여 태고, 천태, 진각종의 승직자들은 교리와 수행면에서 수준을 측정하는 법계고시를 통과해야만 품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승직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신규 승직자에 대해서는 4년내지 7년간의 소정교육을 이수해야만 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불교계의 타 종단이 이러한 교육체계를 확립할 수 있었던 것은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신도들의 교육수준이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시대상황에 맞게 자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불교대학이 마련, 꾸준히 운영해 왔다는 것이다.

총지종의 미래는 종단의 불단장엄도와 의식체계의 변화 등에도 달려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얼마나 많은 인재들을 수급하고 이러한 인재들을 교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더불어 확고한 종교관을 인식시킴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발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느냐에 달려있다. 이제 종단은 총지불교대학의 정상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통해 교육체계를 확립할 때가 된 것이다.

김종우/총지종보사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눕시다

2004년 7월 27일부터 2004년 8월 25일까지

개천사 김경민 10,000	만보사 이설강 10,000	성회사 우담바라 100,000	실지사 주영채 5,000	총지사 지심행 10,000
개천사 김옥희 10,000	밀인사 김덕배 10,000	수인사 김봉기 10,000	운천사 박보경 20,000	해정사 박종석 10,000
개천사 김인호 10,000	밀인사 김덕자 10,000	수인사 김진 10,000	자석사 우바이 63,000	해정사 자성신 10,000
개천사 박병선 5,000	밀인사 배태임 5,000	수인사 한애숙 20,000	정각사 구정희 20,000	해정사 정은선 20,000
개천사 박병선 5,000	밀인사 신대식 5,000	실보사 방원순 10,000	정각사 김병진 20,000	해정사 조성기 10,000
개천사 이희권 10,000	밀인사 신동의 5,000	실보사 송희준 10,000	정각사 김집남 10,000	해정사 지성인 20,000
관성사 박현숙 10,000	밀인사 신동희 5,000	실보사 안경숙 5,000	정각사 남숙자 20,000	해정사 해보심 10,000
관성사 이혜원 5,000	밀인사 안옥진 10,000	실보사 이순옥 5,000	정각사 박영숙 10,000	화음사 강순란 5,000
관성사 황성녀 10,000	밀인사 안옥진 10,000	실보사 이순옥 5,000	정각사 설성희 5,000	화음사 송영근 5,000
기로원 대관 10,000	밀인사 이연수 10,000	실지사 보성각 5,000	정각사 신영자 5,000	흥국사 김현숙 20,000
기로원 대자행 10,000	밀인사 이재호 10,000	실지사 성대성 6,000	정각사 이란이 10,000	무명씨 10,000
기로원 법장화 10,000	밀인사 이혜성 5,000	실지사 이숙래 5,000	정각사 이수임 5,000	박남섭 20,000
기로원 상지화 10,000	밀인사 정정희 5,000	실지사 이숙자 10,000	정각사 조현필 5,000	안화자 10,000
단향사 공철봉 2,000	백월사 박삼순 5,000	실지사 장옥태 10,000	정각사 최분순 10,000	오윤보 3,000
덕회사 김상열 10,000	백월사 이민자 5,000	실지사 정경자 5,000	정심사 박옥란 20,000	이화수 5,000
덕회사 정숙점 10,000	법천사 권남순 20,000	실지사 정연수 5,000	지인사 무명씨 10,000	최순전 10,000
만보사 박정심 10,000	법천사 임선순 10,000	실지사 정우석 5,000	총지사 양철미 30,000	
만보사 배정임 10,000	벽룡사 권분생 20,000	실지사 정우석 5,000	총지사 이인성 30,000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의 복지사업에 소중한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월일 경우 회계장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에 소속사원명을, 통산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7668610
- 우리은행: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552-1083, 3452-7485

총지칼럼

할머니불교를 지양합시다



김종인

▲(현) 고려대학교 BK21 연구교수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불교 연구로 철학 석사 (1994)
 ▲스토니브룩 대학교 불교 연구로 철학 박사 (2002)

한국 불교는 보살불교라고 합니다. 보살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여자 신도들을 지칭하는 말로 그 의미가 변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불교에는 사실상 여신도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신도들도 그냥 여신도가 아닙니다. 모두 나이 많은 할머니 신도들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불교는 할머니불교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실제 신도의 9할 이상이 50대 후반에서 6,70대 할머니들이라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불교의 쇠락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 신도 가운데 젊은이가 없다는 것은 한국 불교의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6,70대 할머니 신도들이 모두 돌아가신 20년, 30년 후에는 신도 수가 지금의 10분의 1밖에 안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한국의 농촌이 폐허가 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것이 농촌에 젊은이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불교는 한국 농촌보다 더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농촌에는 나이는 많지만 그래도 남자들이 있는데 한국 불교 신도 가운데는 젊은이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남자가 없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신도들이 모두 할머니들이다 보니 불교의 대중 범회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사홍서원을 함께 외우고 그 소리가 마냥 늘어지지만 하고, 반야심경을 함께 외워도 웅얼웅얼 탁하기만 합니다. 각종 행사도 단조롭기 짝이 없습니다. 목탁치고 염불하고, 목탁치고 염불하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외고 또 외고 되풀이할 따름입니다. 신도들끼리 모임이라도 만들어 놓고 보면 신도회가 아니라 노인회가 되고 맙니다. 신도회 회원들이 사찰에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거나 하는 경우를 보면 마치 경로당 회의 같습니다. 그러나 신도회가 활발히 움직일 리가 만무합니다. 사찰이 잘 되려면 훌륭한 승려가 좋은 설법으로 신도들에게 지적인 자극을 주어야 하겠지만, 그 이전에 필요한 것이 신도들이 서로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

여 자발적으로 설법을 들으러 절에 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도들이 모두 할머니들이다 보니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할머니들끼리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겠습니까? 등산을 하겠습니까? 사회봉사활동을 하겠습니까? 오로지 하는 것이 라곤 중국서 수입한 미꾸라지나 자라를 방생하기 위한 여행을 함께 하는 정도입니다. 또 오늘날의 사회는 각 종교 단체들의 사회봉사가 활발하지만 신도들이 모두

대단히 불경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불교 승려들 가운데는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을 교화하는 데 필요한 지적 자질을 갖춘 사람은 그 수가 매우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 지적으로 뛰어난 승려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현대의 학문과 문화 교양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어서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설법을 못 하기는 때 일반인입니다.

다.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혼하여서는 남편의 결정에 순종해 온 분들입니다. 인내와 순종에 훈련된 분들에게 아무런 알맹이도 없고 논리적 설득력도 없는 승려들의 설법을 듣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분들은 설법을 들으려고 절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불공을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설법은 그냥 승려들이 하고자 하니까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 주는 차원에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거나, 그 소리가 그 소리인 지루한 설법이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들이 설명하였습니다. 왕이 오면 왕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고, 상인이 오면 상인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고, 아나네가 오면 아나네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고, 처녀가 오면 처녀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또 자기 나름의 논리를 갖춘 철학자가 오면 그가 자신의 오류를 깨닫고 감복할 수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처를 지칭하는 별명 가운데는 세간해 라는 말도 있습니다.

믿음과 깨침, 혹은 신앙과 이성이라는 말로 양분법적으로 말하자면 불교는 깨침의 종교이며 이성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승려들이 설법을 제대로 못 한 결과로 이성적 교화를 통해 불교 신도가 된 이들이 없고, 오로지 소박한 신앙심으로 절을 찾는 할머니들만 절에 남았습니다. 이것은 불교 자체가 잘 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성은 없고 신앙만 있다면 그것은 불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절에는 할머니 신도들밖에 없지만 절밖에는 다양한 계층의 남녀 예비 신도군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의외로 불교에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적으로 예민하고 선량한 사람일수록 그 어떠한 종교나 철학보다도 불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한결같은 바람이 있습니다. 좀 쉽게 불교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불교교리는 참 훌륭한 것 같은데 쉽게 이해시켜 주는 책도 없고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쉽고 말이 되는 설법으로 하루 빨리 이들이 절에 오도록 해야겠습니다.

사찰이 잘 되려면 훌륭한 승려가 좋은 설법으로 신도자극 교화의 출발은 언설로 사성제와 연기법의 교리를 전달

할머니들이다 보니 불교계는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힘들다. 머지않아 봉사를 받아야 할 분들이 어떻게 사회봉사를 하겠습니까? 신도들이 할머니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단지 신도 분포 상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한국불교의 근원적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타 종교의 어떠한 신도들보다도 신심이 뛰어난 할머니 신도들을 무시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 분들이 한국불교 신도의 전부가 된 것은 한국 승려들의 지적인 자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승려들의 지적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머니들만이 절에 오게 된 것입니다. 신도들로부터 삼배의 절을 받는 승려들이 지적 자질이 부족하고 하면

이렇게 승려들의 지적 자질이 떨어지다 보니 신도들에게 올바른 설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머리가 개인 사람이라거나, 따져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승려들의 무식한 설법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알아듣지 못할 말만 하다가 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는가 싶으면 황당무계한 인과응보설이나, 하나하나나 도덕적 훈계를 설법이라고 하는 사람을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은 믿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히 비판의식 대신에 참고 순종하는 데 익숙한 분들만 설법하는 자리에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6,70대 할머니들은 인내하고 순종하는 것을 평생 배워 온 분들입니다.

이렇게 설법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자신이 무식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승려들이 궁극적인 깨달음의 본질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될 것입니다. 석존도 진리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지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궁극적인 깨달음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승려들이 기초적인 교리조차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깨달음의 궁극적 경지는 불립문자(不立文字)의 세계이지만, 교화의 출발은 어디까지나 언설을 통한 설법입니다. 때문에 석가는 갖가지 인연 비유로서 사성제와 연기법을 비롯한 많은 교리

이달의 설법문안



1. 발원과 목적의 차이

어느 법회 자리에서 한 젊은이가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불교에서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욕심이 없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당연한 그리고 누구나 한번쯤은 가져보지 못한 의문입니다. 약육강식의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짓누르기보다는 무조건 양보하고 욕심을 내지 않으려 하다가는 얼마 안가 도태되고 말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심지어 일부 불자들이 무기력해보이며, 세상에 대하여 염세적이고 피동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까닭도 이러한 불교관에 근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불교 특히 대승불교에서는 발원을 수행의 첫걸음으로 삼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원을 발한다는 것, 이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욕심과는 다릅니다. 욕심과 발원의 차이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욕심은 다분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바람이지만 발원은 공통적인 바램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나만을 위한 원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인류 전체, 나아가서는 일체 중생에 대한 기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와 남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남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며, 남이 잘되는 것이 곧 내가 잘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욕심은 본능적인 것이지만, 발원은 능동적인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부와 명예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타고난 것입니다. 하지만 발원은 애당초 없는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꿈에도 남에게 주고자하는 마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러 원을 발하여서 자꾸 배푸는 마음을 연습함으로써 아상의 소멸에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욕심은 결과를 중시하지만 발원은 과정을 중시합니다. 한마디로 발원은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는 것입니다. 욕심은 미래에 중점이 두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원달성을 위해서 때로는 현재를 희생할 것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발원은 현재에 중점이 두어져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가 세운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하지만,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노력하는 자체가 즐거운 것입니다.

2. 발원의 요령

이상과 같은 의미에서 보건대, 발원은 참다운 자기전환의 시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업(業)생이 아니라 원(願)생으로 나아가는 첫 단추인 것입니다. 업생이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과거의 지은 바 업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생이란, 스스로의 삶을 감주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과거의 업을 벗어나 새로운 창조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발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이든 마음에 그러는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심이 없다면 그렇지만 마음 속 어떤

가에 걸림이 있기 때문에 즉 못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의욕이나 선입관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원을 세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발원을 세우는 데도 요령이 있습니다. 탐·진·치 모두가 근본 번뇌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인간 누구에게나 공통된 속성입니다. 욕계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이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욕심은 당연한 것이며, 이에 수반하여 성냄과 어리석음 등이 쉽사리 따라붙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따라서 이러한 삼독 가운데 특히 돌보이는 부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은 유난히 욕심이 많거나 어떤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화를 잘 내며, 어떤 이는 지극히 우둔한 경우 등입니다. 알고 보면 여기서의 욕심이라든가 성냄 혹은 우둔함 등은 사실 그 자체로서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다만 일종의 에너지, 즉 방향성 같은 것일뿐입니다. 발원이란 그 탐·진·치라는 속성 에너지의 방향전환입니다. 그것은 욕심을 완전히 부정하여 억제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욕심을 인정하고 다만 방향을 바꾸어 도심(道心)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은 이는 성욕, 식욕 등의 기본적 욕심을, 붓대를 보고자하는 욕심, 불멸을 깨치고자 하는 욕심, 계를 지키고자 하는 욕심으로 전환시켜 신심이 강한 이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을 잘 내는 이도 마찬가지로

니다. 그들은 사람을 회피하고 남의 과실을 보아 넘기지 못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성냄의 대상을 전환하여 일체의 유위법을 회피하고 자신의 과실을 참지 못하도록 한다면, 뛰어난 관찰력에 힘입어 남보다 훨씬 잘 깨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둔한 이는 오히려 인내심이 강한 장점이 있습니다. 오직 앞을 향하여 뚝뚝뚝 걸어 나가는 황소처럼 옆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하나 장애를 없애 나가면서 통찰을 확립해나가는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3. 발원의 연습

불교의 특징은 부처님께 소원을 비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발원을 다져나가 실행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 단계로서 '의도대로 행동하기'를 연습해 보기로 합니다. 이것은 선 의도, 후 행동을 말하며, 일정한 시간을 정해 놓고 자신의 행동을 의도하는 대로 쫓아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손을 들거나 발을 때는 등의 낱낱 행동을 앞서 마음으로 먼저 읊은 연후에 천천히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별 생각없이 습관적으로 행동하고, 의도가 오히려 이를 뒤쫓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과거의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생인 것입니다. 최초로 자신의 마음에 따라 자신의 목적과 환경이 설정되었음을 망각한 지 오래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반대로 의도한 후 행동하는 연습을 통해서 태초의 자기 모습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행동에서부터 관찰되고 연습되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에게 맞는 발원 즉 목표의 설정이 되어 있는 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정해지지 않은 발원을 가질 경우 발원은 성취되기 어렵습니다.

다. 장단기 목표를 세워서 바라는 바를 쉽게 성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항상 완벽하고자 하는 목표와 마음이 편안하고자 하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는 어느 쪽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완벽주의자이면서 스스로나 상대방을 편안해 해주는 이를 만나기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일상적인 예로 돈에 대한 경멸심을 가진 이가 한편으로는 부유해지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정한 부유해지고자 한다면 돈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돈이나 사람이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이에게 다가서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돈을 더러운 것이며 부지는 대개 사기꾼이나 도둑놈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은근히 부유하기를 바라다면 성취될 리가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도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단적인 예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집단적의식에 자신도 모르게 영향 받고, 지배당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집단적의 가운데 하나로써, 돈을 좋아하는 이를 찬박한 이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돈을 좋아하는 이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당당하게 발원하십시오. "나는 돈을 사랑한다." "나는 명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할 때 돈이나 명예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애착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애착과 사랑은 다른 것입니다. 다만 돈을 많이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돈을 좋아하는 것은 애착입니다. 그러나 돈을 귀중히 여기고 돈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기여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명예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밝힌 욕심과 발원의 차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집자 주)



즐겁고 보람된 추석명절 보내십시오.

오곡이 풍성한 한가위 추석명절!
 천고마비의 청명한 가을날씨처럼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보살님들의 마음속에
 무명을 밝히고, 모든 업장을 소멸하여 교도가정에 해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총기 33년 9월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우 승 합장

기획연재 양부만다라 ⑱

태장계만다라 '관음원(觀音院)'의
연화부발생보살(蓮華部發生菩薩) ·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

지난 호에서 태장계만다라의 세 번째 그림(院)인 '관음원(觀音院)'의 존상(尊像) 가운데 주존(主尊)인 성관자재보살(聖觀自在菩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두 번째로 연화부발생보살(蓮華部發生菩薩)과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한다. (편집자주)

연화부발생보살(蓮華部發生菩薩)

관음원(觀音院)은 변지원(遍知院)을 매개로 하여 지혜로 승화된 대일여래의 대비(大悲)의 덕을 다시 관음의 대비로 발휘하는 곳이다. 연화부발생보살은 중앙의 관자재보살 위쪽에 자리잡고 있다.

이 보살은 묘관찰지(妙觀察智)의 제승공덕(諸勝功德)을 나타내는 보살이다. 연화부의 모든 본존들의 발성을 주관하는 무진(無盡)의 보살이다. 그러나 『대일경』에는 이 보살에 대한 언급이 없다. 『대일경소』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다만 『불공견색경』에 금강수원(金剛手院)의 금강부발생보살과 상대한 개념으로서 언급된 연화부중족생보살을 여기에 인용하여 놓았다고 생각된다.

이 보살의 밀호는 무진금강(無盡金剛)이다. 관음보살의 대비를 끝없이 펼쳐내보기 때문에 무진금강이라 한다. 삼매야행은 미부연화(未敷蓮華)로 상징된다.

미부란 덜 핀 연꽃을 말한다.



연화부발생보살



대세지보살

대세지보살은 아미타 삼존 가운데 한 보살이다. 다른 말로 득대세(得大勢) · 대세(大勢) · 세지(勢至)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아미타불의 오른 편에 모셔져 있는 보처(補處)로서 지혜의 문을 열고 있다.

이 보살은 지혜의 광명으로 일체 중생을 널리 비추어 삼도고(三道苦)를 없애고 위없는 힘을 얻게 하므로 대세지(大勢至)라고 한다. 존형은 정수리에 보배병을 얹고 아미타불의 오른쪽에 앉아서 열불하는 수행자를 맞아 합장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존명(尊名)은 '커다란 세력을 얻은 자'라는 의미로, 『대일경』에서는 '득대세(得大勢)'라고 한역(漢譯)되고 있다. 대비한 세력이 자재하게 작용하는 것에 유래한 존명(尊名)이다. 이 대세지보살의 오른쪽(만다라상에서는 아래쪽)의 비구지의 대비한 세력을 성취하는 본존이라고도 한다.

중생에게 보리심의 종자를 뿌리고, 선심(善心)의 징조를 능히 수호하기 때문에 연화부의 지명왕(持明王)이라고도 한다. 『대일경소』에서 왼손에 갖고 있는 미부연화는 연못에 비유되는 중생심에, 자비한 연화를 발육(發育)시킨다고 기록되어 있다.

현도(現道)의 반개(半開)한 연화는 중생의 보리심을 나타낸다. 오른손은 중생의 자비한 연화를 여는 형상을 하고 있다. 밀호(密號)는 지륜금강(持輪金剛)이다. 세력으로 지니고 있으므로 지(持)로 표현하였고 이를 바퀴에 비유하여 지륜금강(持輪金剛)이라 한 것이다. 삼매야행은 마찬가지로 미부연화(未敷蓮華)의 모습

연화부발생보살은 묘관찰지(妙觀察智)의 제승공덕(諸勝功德)을 나타내는 보살
대세지보살은 지혜의 광명으로 일체 중생을 널리 비추어 삼도고(三道苦)를 없앴

존형은 백옥색으로 왼손은 허리에 대고 개부연화(開敷蓮華)를 들고 있다. 오른손은 가슴에 대고 무명지(無名指)를 구부린 모습으로 적연화(赤蓮華)에 앉아 있다. 인상(印相)은 연화합장(蓮華合掌)이다. 연화부발생보살의 진언은 '나막 사만다 보다남 기사타 라 얄 캄 사바하'이다. 뜻은 '널리 모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기사타 라 얄 캄 사바하'이다.

이다. 존형(尊形)은 옥색(肉色)으로 왼손에는 반개(半開)한 연화(蓮華)를 들고 있으며, 오른손은 인지(人指) 이하의 네 손가락을 구부려서 가슴에 대고, 적연화(赤蓮華)에 앉아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인상(印相)은 허심합장(虛心合掌)이다. 대세지보살의 진언은 '나막 사만다 보다남 잠 잠 사 사바하'이다. 뜻은 '널리 모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잠 잠 사 사바하'이다. (자료정리 : 법장원)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

생활속의 밀교

모든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불교에서는 인생 전과정을 괴로움의 덩어리라고 말한다. 이를 표현하여 일체개고(一切皆苦)라 한다. 일체개고(一切皆苦)란 '일체 모든 것은 다 괴로운 것이다'라는 뜻이다. 왜 일체 모든 것이 모두 괴로운 것일까?

그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다시말하면 일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기(諸行無常) 때문에 영원한 내가 없고(諸法無我), 그러므로해서 '일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모두가 괴롭다'는 것이다. 그래서 석존은『잡아함경』에서 '무상한 것은 곧 괴로움(苦)'이라고 설하였다.

이와같이 일체존재에 대한 속성은 '제행무상(諸行無常)'과 '제법무아(諸法無我)', '일체개고(一切皆苦)'라는 세 가지 진리로 설명된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설명되는 것이 아니고 공히 회통되는 진리이다. 따로 떨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라 서로가 유기적으로 설명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제행무상(諸行無常)→제법무아(諸法無我)→일체개고(一切皆苦)라는 과정의 설명은 결과적인 측면을 나타낸 것이고, 일체개고→제법무아→제행무상의 설명은 원인적인 측면을 말한 것이다.

불교의 이러한 사고에 대해 세상에는 모두 괴로움만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며 즐거움도 있지 않느냐 하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즐거움을 가지기는 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학고성적은 항상 상위 등급을 유지해야 하고, 돈도 제일 많이 오랫동안 있어야 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 또, 오랫동안 병실에 누워 지내던 환자가 어느 날 다 나아서 퇴원을 할 때는 하늘을 날아갈 듯한 환희와 해방감을 갖게 된다. 그러나 과연 그 환희와 즐거움, 고마운 마음이 얼마나 오래 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줄어들어 나중에는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늘 보고 있고 또 잘 알고 있다. 인간에게 감사한 면은 누구에게나 있다. 조금 나아지면 자만에 빠지고 조금 상황이 나빠지면 수그러들 무조건 매달린다. 항상 좋고 즐거우며 행복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즐거움(樂)과 괴로움(苦) 뿐만 아니라 괴로움과 즐거움의 그 중간도 괴로움이라고 보고 있다. 더 나아가 괴로움뿐만 아니라 즐거움마저도 괴로움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즐거움이란 것도 결국은 괴로움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괴로움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즐

거움이 영원하다면 괴로움 리가 없는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석존은 '일체는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라고 설파하였다. 그 괴로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세상에 태어나고(生) 늙고(老) 병들고(病) 죽는(死) 것은 괴로움이다. 미운 것과 만나고(원증회고) 원증회고(憎會苦),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고(애별리고) 애별리고(愛別離苦), 구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것은 괴로움(구부득고) 구부득고(求不得苦)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취온(五取蘊)은 괴로움이다(오음성고) 오음성고(五陰盛苦)'고 하였다. 이를 여덟가지의 괴로움(八苦)이라고 한다.

또 어떤 때는 괴로움을 세 가지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고고(苦苦) · 행고(行苦) · 괴고(壞苦)의 세 가지이다. '괴로움의 괴로움(苦苦)'은 인간의 감각적인 괴로움을 가리키며, '행의 괴로움(行苦)'은 개체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서 일어나는 괴로움을 뜻하고, '부서짐의 괴로움(壞苦)'은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막상 부서지고 없어지는 괴로움을 말한다.

▶이러한 자가 속에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훨씬 덜 괴롭게 된다. 괴로움을 괴로움이라고 느꼈을 때 우리는 자만하지 않게 되며 성숙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 '모든 것은 괴로운 것'이라고 하는 가르침은 절대 회의적이거나 염세적인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희망적으로 살아갈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다. 단지 영원하지 않으므로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남을 속이고 미워하며 살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모두를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제행무상' '제법무아' '일체개고', 이 세 가지의 진리는 불교의 근본 교리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자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실천법이기도 하다. 늘 이 세 가지의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밀교에서는 현실을 긍정하고 적극적인 사고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보지 않고 성불로 가는 과정으로써 환희의 세계로 바꾸어 전식득지(轉識得智)의 삶을 살아가도록 교설하고 있다. 일체 모든 괴로움을 큰 즐거움으로 바꾸도록 하는 것이 밀교의 교리요 가르침이다. 이를 대락사상(大樂思想)이라 한다. 내 마음 속에 큰 즐거움으로 채우는 과정이 밀교의 수행이요 구경성불(究竟成佛)로 가는 길이다. (법경/ 연구원/사무국장)

진언수행의 길

삼밀수행이란 몸과 입과 뜻의 삼밀(신밀, 구밀, 의밀)을 상응하게 하여 행하는 수행이다. 신밀이란 신체상의 행위와 활동이며, 구체적으로 인계를 말한다. 구밀이란 언어상의 행위와 활동이며, 진언을 말한다. 의밀이란 정신상의 행위와 활동이며, 관법을 말한다. 그러나 진정한 삼밀은 입으로 진언을 외우고, 몸

으로 결인을 맺고, 뜻으로 관법을 행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남에게 좋은 말을 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 등 불교에서 설하고 있는 모든 수행교설을 가르침대로 법대로 행하는 진정한 진언이요 구밀이다. 또 항상 긍정적인 생각, 넓고 크고 둥근 마음으로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이 진정한 심관삼법이요 의밀이다. 그리고 남을 위해 봉사하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활하고 즐겁게 수행하는 것이 진정한 인계요 신밀이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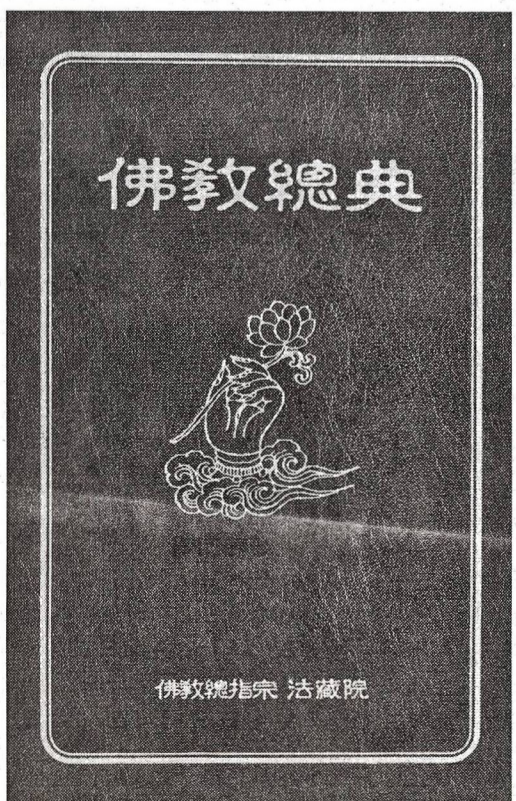
불교경전의 정화(精華)! 『불교총전』

팔만대장경의 주옥같은 말씀을 이 한 권에...

팔만대장경 가운데에서도 가장 빛나는 부처님 말씀을 이 한 권에 가려 뽑았습니다. 『불교총전』한 권으로 불교의 근본교리와 실천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교법(教法)/수도(修道)/업감연기(業感緣起)/ 자기에 대한 덕의(德義)/타인에 대한 덕의(德義)/포교와 구경해탈 및 열반



국판 고급양장 금박/700페이지/정가 35,000원

도서출판 법장원 Tel : (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총지논단

본 글은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 서적간행을 위해 친히 쓰셨던 원고의 일부입니다. 원정 대성사께서 창종의 뜻을 구국도생(救國度生)에 두셨던 만큼 구국절절 일체 중생제도의 대비원(大悲願)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한국밀교의 중흥을 창종 정신으로 삼았던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정통밀교종단의 교상과 사상의 체계와 정립에 전념하셨습니다.

특히, 한때 진각종단의 총인직을 맡으셨을 때는 모든 교리체계와 교전편찬을 손수 완성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면면은 원정 대성사의 유교(遺稿)에서 엿보게 됩니다. '심인진리' '진각' 등의 언급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총지종과 진각종의 교전을 아우르고 있는 종조 원정 대성사의 가르침에서 대성사의 숨결을 다시 한번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구병(救病)

현세계는 이원공도 시대라 전기와 같은 밝고 분명한 물심이원국가로 건설되어 가는 것을 조직적 말하면 과학은 푸라스와 같다. 정치로서 의학 등 과학을 가르쳐서 발전하게 되니 물리는 쉽게 받아 서고 종교는 마이너스와 같다. 국민이 자기가 각각 희망하는 종교도 체를 세워 자유로 발전하게 되니 심인진리는 좀 늦게 설 때를 이룬다.

현재 우리 민족은 태양같은 밝은 성품이 구름같은 검은 감정에 가려져서 암흑

한 병마 가운데 살고 있느니라.

이원공도 시대입에도 공도를 주로 세우지 않고 습관적 중도로서 행하고 있는 집과 공도를 세우되 물원과학은 배워서 쓰고 심원 종교는 세우지 않는 데 따라 그 집들의 병나는 것을 보면 분명하게 형상과 내부로 나누어져 있느니라.

물심이원을 세우는 과학도 종교도 부인하고 습관적 일원 중도로 행하고 있는 집들의 큰 병은 문동병 중풍증 반신불수 수은동이 절룩병 앞은병이 대중 대창 귀머거리 봉사 병어리 등 한 때 지나간 형상병이 많았고 공도로 행하여 가는 데도 과학으로 물원(物元)을 세워서 행하므로 잘 사는 데 종교로서 심원(心元)을 세우지 않으므로 나는 큰 병은 제일 미친 병 열의 하나쯤 미친 것 셋쯤 미친 것 다섯쯤 미친 것 일곱쯤 미친 것 다 미치게 된 것과 폐병 위병 심장염 늑막염 등 해부할 내부병을 내나니 이 과도기에 있어서 사상적으로도 병이 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할 수 있다. 자유시대에 봉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집들의 중대한 병이 날때는 반드시 형상병이 나는 것이요 물심이원시대에 물(物)은 세우고 심(心)은 세우지 않는 집들에 중대한 병이 날 때

고 사상이 시대를 따르는데 있는 병도 없애지는 것을 분명히 알겠다.

현재는 이원 다원으로 나아가는 시대라 이때에 물원과 심원을 세우고 실천하는 집들은 이 두 가지의 중한 병을 내는

땡게 하면 병이 없어질 것도 알 것이다.

태장 금강 양계만다라

태금양계(胎金陽界)는 밀교 교리상의

로서의 절대계를 비유로 나타내어서 금강(金剛)이라 한다.

이(理)는 만유(萬有)의 대본(大本)이요 또 이것이 만법(萬法)을 함장호육(含藏護育)하는 것이 모태(母胎)의 남자들

지(智)는 본래 일체의 미혹을 단파(斷破)하고 이(理)를 현증(顯證)해서 제법(諸法)을 요지(了知)하는 능력을 확립(獲立)한 것이다.

금강의 계가 견고하여서 일체의 파괴에 파괴하고 그 용(用)이 또 능히 일체의 장애를 확파하는 데 비유해서 지(智)를 금강이라 한다.

법화경 해서

이 마음을 잘 닦자면 나라에 공민되고 부모에게 복을 짓고 가정에 화목하고 친구에게 신(信)을 두고 남에게 불의(不義)하지 말며 산 목숨 죽이지 말고 남의 재물 도적질 말며 내 가족 두고 남의 사람 욕심두지 말며 악담하지 말며 두 말로 사람을 속이지 말며 말로 이리저리 꾸미지 말며 성내지 말고 남을 못된 험담 말며 못된 얼굴 하지 말고 좋은 착한 일만 하는 것이 이 마음을 잘 닦는 것이니라.

(자료제공 : 종학연구실)

그동안 여러 회에 걸쳐 연재해왔던 종조 원정 대성사의 육필원고를 금번 호로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연재에 협조해주신 종학연구실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관심을 가져주신 독자 제위와 승단, 교도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부처님의 가지력이 함께 하시기를 서원합니다. (편집자주)

착한 일만 하는 것이 마음을 잘 닦는 것 태금양계(胎金陽界)는 밀교 교리상의 근본교리

는 반드시 내부병이 나는 것이니 이것을 볼진대 사상이 시대를 따르지 않는 데 사상이 시대를 따르지 않는 데 병이 나

이가 없으리라. 이와 같은 이치를 지혜로서 보고 알게 되면 우리 민족에 고치기 어려운 병이 무엇으로 인해서 나오며 어

근본교리가 되고 또 그의 신자도 지중한 본존이라 이(理)로서의 절대계를 비유로 나타내어서 태장(胎藏)이라 하고 지(智)

함장해서 남자성격의 일체를 함장하고 호육하게 되는데 비유해서 이(理)를 태장이라 한다.



김장규 원장의 총지 동의보감 치매이야기 ①

넌시가 누구죠?

1994년 전 미국 대통령 레이건이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앓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 한 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현재까지의 의학으로는 완치가 어려운 치매라는 노인성질병에 걸려 투병을 시작한 것이다. 1999년 모 국내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당시 레이건은 자신의 부인이었던 넌시를 알아보지 못하고, "넌시가 누구죠?" 라고 주변사람들에게 물었다고 한다. 그

주변사람이 누구인지도 곧 잊어 버렸을 것이다. 넌시여사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고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을 함께 나눌 수 없다는 점에서 치매는 최악의 질병"이라고 했다고 한다. 치매는 치매에 걸린 환자 자신이나 치매환자를 돌보아야 하는 가족과 지역사회에 커다란 이해와 희생을 요구하는 만성정신질환으로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보건문제로 등장하

였다. 노인 그 가족 및 지역사회 모두가 치매의 예방과 치료 및 재활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때이다. 2000년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노인

이중 20~30%가량은 레이건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옆의 사람이 자신의 가족이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중증치매이다. 영양과 위생의 개선 및 의술의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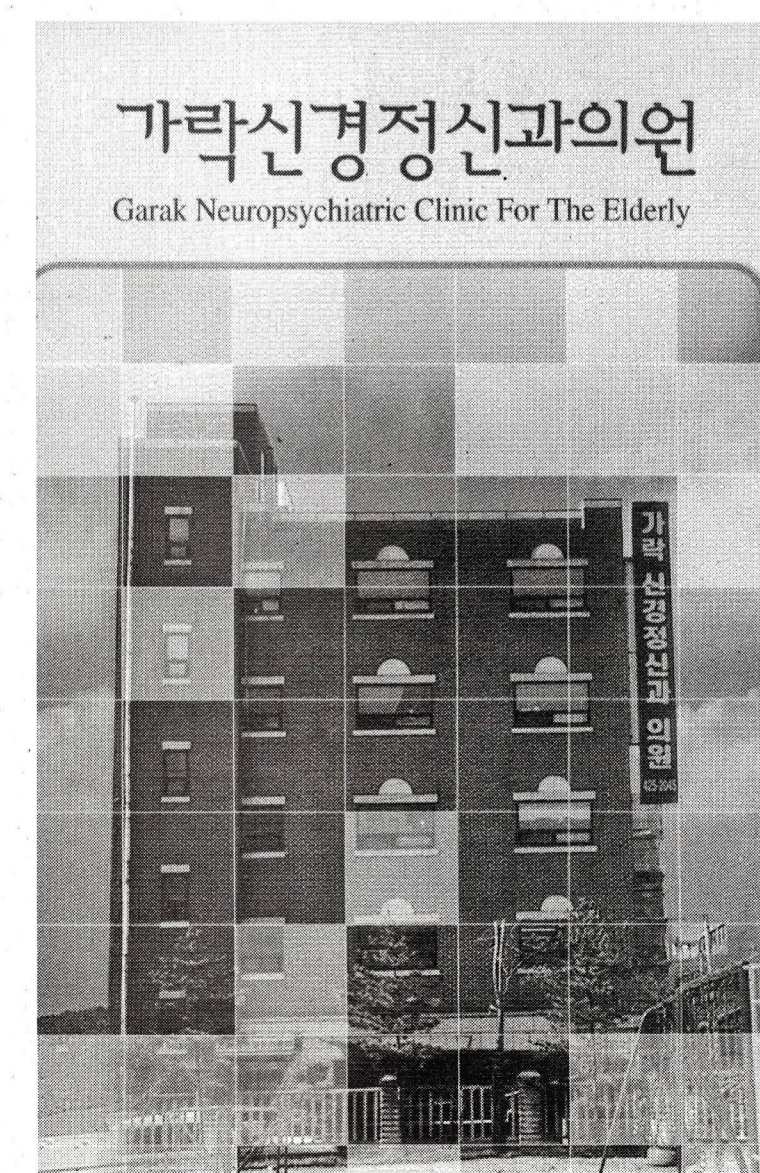
에 걸릴 위험도 그만큼 높아진다. 치매는 나이가 많아 질수록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제 '내 일' 이거나 '내가족의 일'이 되었다. 그러므로 치매에 대한 건강상식

치매는 환자나 가족과 지역사회의 이해와 희생 요구 치매에 대한 건강상식을 알고 예방을 위해 노력 필요

인구 비율이 6.7%가량 되고, 65세 이상 노인의 5~8%가량이 치매에 걸려있다는 국내의 보고에 근거하면, 2000년 이후 우리나라에만 20만명이상의 치매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로 평균수명이 70세를 넘어선 현재 치매는 그야말로 '남의 일'이 아니게 된 것이다. 100명중 5~8명은 치매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평균수명보다 더 오래살면 치매

을 알고 일상생활에서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일단 발병한 치매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가락신경정신과의원 ☎ 02) 425-2045



강남 최초의 노인치매 전문요양병원

1995년 서울에서 최초로 개원한 치매/중풍 전문 요양병원입니다. 2003년부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갖춘 간호진이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 및 따뜻한 정성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전문진료과목

◆ 치매 치매란 과거에 "노망"이라고 부르던 노인성 질환입니다. 중년까지 잘 생활하다가 노년 이후가 되면 기억력이 저하 길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몰라보는 등 인지기능이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옷을 입지 못하거나 식사도 할 수 없게 되는 뇌의 퇴행성 질환입니다.

◆ 뇌졸중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기능에 심각한 이상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의식이 없어지거나 사지의 마비나 감각 상실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하여 바깥출입을 못하고 식사나 위생 등 일상생활의 유지에 주변사람의 도움이 항상 필요하게 됩니다.

◆ 노인성 우울증 노년기에 흔한 신경정신과적 질환의 하나로 우울감, 불안 초조, 불면 및 흥미상실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고통스러운 질환이다. 상담과 약물치료로 잘 치료가 되는 질환이나 본인이나 가족이 노년기 우울증에 대한 인식이 낮아 적절하게 치료되지 못하는 질환이기도 하다.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 www.elderlynp.co.kr 전화상담 02)425-2045 fax : 02)423-1726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85



김장규 가락신경정신과의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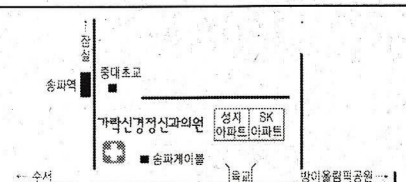
주요경력

- 1991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1996년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취득
경기도 연천군 보건의원 정신과과장
2000년 전임의과정 수료(서울대학교병원, 노인정신의학 전공)
2001년 석사학위 취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호주 멜버른대학 연수 (IMHLP: International Mental Health Leadership Program)
2002년 박사학위과정 수료(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정신병원 및 경기도립노년전문병원 정신과 과장
전국 정신요양시설 평가위원회 위원

진료시간

평일(토) : 09:00~18:00
일요일 & 공휴일 : 예약진료
응급 / 입원환자 제외

약도



풍경소리

오줌 누는 자갈

농사에 경험이 없는 젊은이가 흙 속에 박힌 자갈을 전부 주워낼 요량으로 하루 종일 땅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말없이 지켜보던 동네 노인이 한 마디를 던졌습니다.

“젊은이, 자갈이 오줌을 누는 법이라네 자갈은 흙속에 물기를 머금고 있다가 흙이 뜨거워지면 물을 내뿜어 수분을 조절해 주고

땅에 숨구멍을 내주어 결과적으로 농사에 이로움을 준다네.”

우리 삶에도 이런 자갈이 수 없이 박혀 있겠지요.

그런데 자갈 탓을 하느라 정작 씨앗을 뿌릴 시기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 이명선/수필가

노력

어떤 사람이 이웃마을의 아름다운 3층집에 올라가 보고는 목수를 불러 이 집보다 더 좋은 3층집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목수는 땅을 고르고 기둥을 세우고 벽돌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이 목수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몇층 집을 짓느냐?” 목수가 대답했습니다. “3층집을 짓기 위해 1층을 짓고 있습니다.” 주인이 말했습니다.

이달의 명상

마음을 비우고 법문을 들어라

법문을 들을 때는 모름지기 모든 생각을 비우고 들어야 합니다.

“속효심도 내지 말고, 나태심도 내지 말고, 슬금 슬금 가다 보면, 해돋을 때 아니올까”

이 옛 노래는 인생살이에 대한 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간다고 하여 해가 빨리 뜨는가? 아닙니다. 느릿느릿 간다고 하여 해가 늦게 뜨는가? 아닙니다. 해는 뜰 때가 되면 저절로 뜹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 조금씩도 품지 말고 게으름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법문을 들음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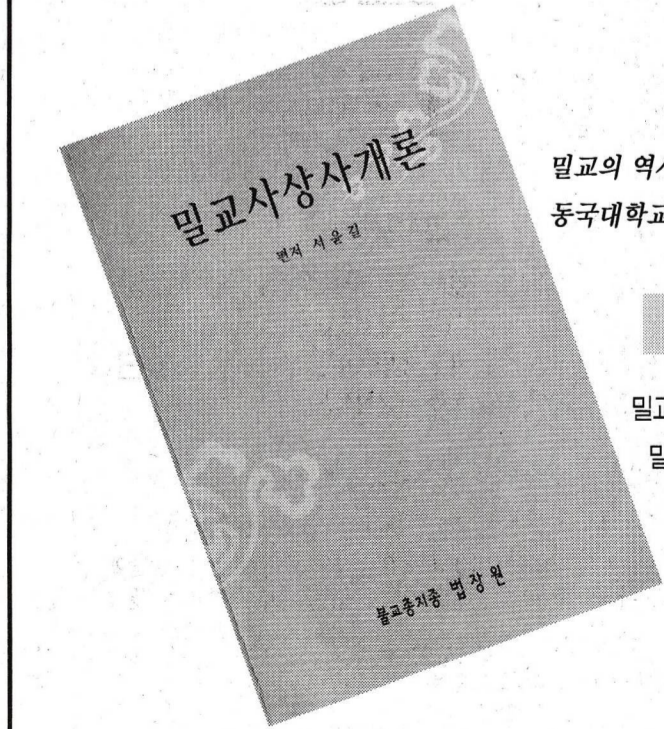
깨달음은 조금이나마 게으름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과 함께 하는가? 텅 빈 마음과 함께 합니다. 마음이 완전히 비어 있을 때 법문은 온전히 나의 것이 됩니다. 번뇌의 구정물이 꼭 찬 곳에 맑은 물을 부어 보십시오. 물의 탁한 기운이 맑아지는 하겠지만 역시 구정물이 될 수밖에 없듯이, 잠깐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에 법문을 담으려고 하면 제대로 담기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마음을, 곧 모든 번뇌망상을 비우라고 한 것입니다.

실로 법문을 들음에 있어서 나에게 맞는다는 생각이나 맞지 않는다는 생각, 법문을 잘한다는 생각, 못한다는 생각까지도 비워야 합니다. 법문을 잘한다 못한다, 재미있다 재미없다는 생각도 모두 번뇌망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번뇌망상들을 완전히 비울 때 감로수, 곧 감로의 법문이 고스란히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꼭 같은 법문을 듣고 어떤 사람은 도를 깨치는 데 어떤 사람은 도를 깨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양과 같은 광명을 뿜어내고 어떤 사람은 더욱 암담해지기도 합니다.

그 열쇠는 각자가 쥐고 있습니다. 마음 가득 번뇌망상을 담고 말만 배우고자 하거나 지식 충족의 수단으로 법문을 듣는다면 생사 이외에는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스스로 온전히 마음을 비우고 법문을 들으면 틀림없이 깨달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부처님과 모든 선지식이 한결같이 말씀 하셨듯이, 모름지기 마음을 비우고 법문을 들도록 합시다. 머지 않은 날, 틀림없이 깨달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편집자 주〉



밀교의 역사와 교리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 개론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서운길 교수의 7명의 밀교학자가 공동 집필...

주요내용

밀교란 무엇인가/밀교의 기원과 형성/밀교의 성립과 전개/ 밀교의 사상과 그 교학적 배경/밀교의 수행과 실천/한국의 밀교/ 부록:한국현대밀교와 원정대성사

국판/437페이지/정가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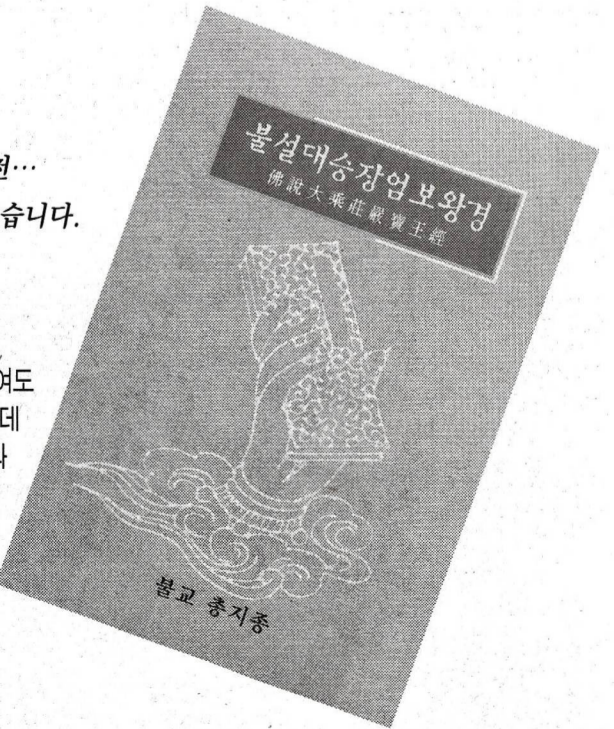
원정대성사와함께하는 VISUAL밀교 ~반야심경편 제 31화~

글:그림/정수일

Comic strip panels with dialogue. Panel 1: A man in a topknot asks a man in a hat about the meaning of death. Panel 2: The man in the hat explains reincarnation. Panel 3: A man asks about the 'Aśura' realm. Panel 4: The man in the hat explains the cycle of rebirth. Panel 5: A man asks about the 'Aśura' realm. Panel 6: The man in the hat explains the cycle of rebirth. Panel 7: A man asks about the 'Aśura' realm. Panel 8: The man in the hat explains the cycle of rebirth. Panel 9: A man asks about the 'Aśura' realm. Panel 10: The man in the hat explains the cycle of rebirth. Panel 11: A man asks about the 'Aśura' realm. Panel 12: The man in the hat explains the cycle of rebirth. Panel 13: A man asks about the 'Aśura' realm. Panel 14: The man in the hat explains the cycle of rebirth. Panel 15: A man asks about the 'Aśura' realm. Panel 16: The man in the hat explains the cycle of rebirth. Panel 17: A man asks about the 'Aśura' realm. Panel 18: The man in the hat explains the cycle of rebirth. Panel 19: A man asks about the 'Aśura' realm. Panel 20: The man in the hat explains the cycle of rebirth. Panel 21: A man asks about the 'Aśura' realm. Panel 22: The man in the hat explains the cycle of rebirth. Panel 23: A man asks about the 'Aśura' realm. Panel 24: The man in the hat explains the cycle of rebirth. Panel 25: A man asks about the 'Aśura' realm. Panel 26: The man in the hat explains the cycle of rebirth. Panel 27: A man asks about the 'Aśura' realm. Panel 28: The man in the hat explains the cycle of rebirth. Panel 29: A man asks about the 'Aśura' realm. Panel 30: The man in the hat explains the cycle of rebirth. Panel 31: A man asks about the 'Aśura' realm. Panel 32: The man in the hat explains the cycle of rebirth. Panel 33: A man asks about the 'Aśura' realm. Panel 34: The man in the hat explains the cycle of rebirth. Panel 35: A man asks about the 'Aśura' realm. Panel 36: The man in the hat explains the cycle of rebirth. Panel 37: A man asks about the 'Aśura' realm. Panel 38: The man in the hat explains the cycle of rebirth. Panel 39: A man asks about the 'Aśura' realm. Panel 40: The man in the hat explains the cycle of rebirth. Panel 41: A man asks about the 'Aśura' realm. Panel 42: The man in the hat explains the cycle of rebirth. Panel 43: A man asks about the 'Aśura' realm. Panel 44: The man in the hat explains the cycle of rebirth. Panel 45: A man asks about the 'Aśura' realm. Panel 46: The man in the hat explains the cycle of rebirth. Panel 47: A man asks about the 'Aśura' realm. Panel 48: The man in the hat explains the cycle of rebirth. Panel 49: A man asks about the 'Aśura' realm. Panel 50: The man in the hat explains the cycle of rebirth. Panel 51: A man asks about the 'Aśura' realm. Panel 52: The man in the hat explains the cycle of rebirth. Panel 53: A man asks about the 'Aśura' realm. Panel 54: The man in the hat explains the cycle of rebirth. Panel 55: A man asks about the 'Aśura' realm. Panel 56: The man in the hat explains the cycle of rebirth. Panel 57: A man asks about the 'Aśura' realm. Panel 58: The man in the hat explains the cycle of rebirth. Panel 59: A man asks about the 'Aśura' realm. Panel 60: The man in the hat explains the cycle of rebirth. Panel 61: A man asks about the 'Aśura' realm. Panel 62: The man in the hat explains the cycle of rebirth. Panel 63: A man asks about the 'Aśura' realm. Panel 64: The man in the hat explains the cycle of rebirth. Panel 65: A man asks about the 'Aśura' realm. Panel 66: The man in the hat explains the cycle of rebirth. Panel 67: A man asks about the 'Aśura' realm. Panel 68: The man in the hat explains the cycle of rebirth. Panel 69: A man asks about the 'Aśura' realm. Panel 70: The man in the hat explains the cycle of rebirth. Panel 71: A man asks about the 'Aśura' realm. Panel 72: The man in the hat explains the cycle of rebirth. Panel 73: A man asks about the 'Aśura' realm. Panel 74: The man in the hat explains the cycle of rebirth. Panel 75: A man asks about the 'Aśura' realm. Panel 76: The man in the hat explains the cycle of rebirth. Panel 77: A man asks about the 'Aśura' realm. Panel 78: The man in the hat explains the cycle of rebirth. Panel 79: A man asks about the 'Aśura' realm. Panel 80: The man in the hat explains the cycle of rebirth. Panel 81: A man asks about the 'Aśura' realm. Panel 82: The man in the hat explains the cycle of rebirth. Panel 83: A man asks about the 'Aśura' realm. Panel 84: The man in the hat explains the cycle of rebirth. Panel 85: A man asks about the 'Aśura' realm. Panel 86: The man in the hat explains the cycle of rebirth. Panel 87: A man asks about the 'Aśura' realm. Panel 88: The man in the hat explains the cycle of rebirth. Panel 89: A man asks about the 'Aśura' realm. Panel 90: The man in the hat explains the cycle of rebirth. Panel 91: A man asks about the 'Aśura' realm. Panel 92: The man in the hat explains the cycle of rebirth. Panel 93: A man asks about the 'Aśura' realm. Panel 94: The man in the hat explains the cycle of rebirth. Panel 95: A man asks about the 'Aśura' realm. Panel 96: The man in the hat explains the cycle of rebirth. Panel 97: A man asks about the 'Aśura' realm. Panel 98: The man in the hat explains the cycle of rebirth. Panel 99: A man asks about the 'Aśura' realm. Panel 100: The man in the hat explains the cycle of rebirth.

『불설대승장엄보왕경』 (佛說大乘莊嚴寶王經)

육자대명다라니 <옴마니반메훤>의 유래와 공덕을 설한 경전... 이 경을 지니기만 하여도 무량한 복덕과 안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정들이 오직 이 경의 이름만 생각하여도 이러한 이익과 안락을 얻는데 만약 누군가 이 경을 듣고 베껴쓰거나 수지하거나 독송하거나 공양하고 공경하면 그 사람은 항상 안락을 얻을 것이니라.” ---본문 중에서---

변형 국판/130페이지/정가 7,000원

도서출판 법장원

Tel:(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지혜의 샘

불교 충지종 종령 효강 대중사께서 8월 30일부터 9월 26일까지 불교방송에 출연하여 낭송하시는 경전내용입니다. 효강 대중사께서 낭송하시는 지혜의 샘을 들으시고 감로수를 마시듯 해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8월 30일 월요일 - 9월 5일 일요일 10:59분

악은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
다시 사람의 몸을 망친다
마치 녹이 쇠에서 생겨나
바로 그 쇠를 먹어들어 가듯이

<법구경>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덥고
비가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여름도 끝자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사는 것이 더욱 힘들지만
건전한 신심으로 이겨내어야겠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나쁜 마음을 내면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로 돌아와
우리 모두를 망칩니다.
삭막한 삶 속에서도 자비롭고 넉넉한 마음으로
편안한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우리 불자들이 앞장섰으면 합니다.

9월 6일 월요일 - 9월 12일 일요일 05:59분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남의 나쁜 것만 보고
자기의 나쁜 것은 알지 못하며
자기의 착한 것만 알고
남의 착한 것은 보지 못한다.

<법률삼매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자신의 잘못은 덮어두고
나의 잘못만 꼬집는다고
갈등과 대립으로 아까운 국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남의 잘못을 비평하기 보자
자신의 잘못을 먼저 돌아봅시다.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한 그런 불자가 되어
이 사회를 더욱 밝고
편안하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9월 13일 월요일 - 9월 19일 일요일 20:04분

아침과 왜곡된 마음으로는
도를 닦기 어려우니
그 마음을 정직하게 가져야 한다
마음을 단정하게 가지고
질박과 정직으로 근본을 삼아야 한다

<유교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면 매우 거창하고
부담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일상의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의 수행은 시작됩니다.
우선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신변의 물건들을
가지런히 정리해 보십시오.
마음이 단정해지고
정직해지는 느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9월 20일 월요일 - 9월 26일 일요일 10:59분

계행은 모든 착한 법의 사다리가 되고
또한 일체 착한 법의 근본이 되는 것이니
망이 모든 초목을 자라나게 하는
근본이 되는 것과 같다

<열반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대승불교권이라고 하여
계행을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주와 흡연은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의 정신을 알게 모르게 황폐화시킵니다.
오늘부터라도
금주와 금연을 실천하여
맑은 정신을 가진
참된 불자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정보 다이제스트

40~50대 월요일 뇌졸중 위험 경계해라

주중 월요일의 뇌졸중 발생률이 가장 높으며 특히 40~50대의 연령은 일요일에 비해 1.3~1.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쿄 교신문에 따르면 일본 돗토리대학 의학부 연구팀은 지난 1984~2001년 중 국내에서 뇌졸중을 일으킨 환자 12,500여 명을 상대로 분석,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

요일별로는 40~50대의 경우 일요일이 남성 12.6%, 여성 11.4%로 주중 뇌졸중 발생률이 가장 낮았던 반면 월요일은 각각 남성 16.9%, 여성 17.2%에 달했다. 60세 이상도 월요일이 남성 15.2%, 여성 16.3%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40~5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요일과의 격차는 크지 않아 직업의 유무가 발병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계절별로는 60세 이상은 봄, 40~50대는 겨울이 가장 높았으며, 각각 여름이 가장 낮았다. 연구팀은 40대는 뇌졸중 위험이 큰 월요일 오전 일은 천천히 하고, 일요일 밤에는 일찍 자는 게 좋다. "고 조언했다.

2020년에는 1인가구와 부부가정 40%

오는 2020년에는 자녀없이 부부만 살거나 혼자 사는 가구가 10가구 중 4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인가구 가운데 독거노인 가구의 점유율도 40%가 넘을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고령화사회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정책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이 되면 부부만 사는 가구 비율이 18.9%, 1인가구는 21.5%로 전체 가구 가운데 40.4%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부가구는 13.2%, 1인가구는 16.4%로 집계됐으며 2010년에는 부부 가구가 15.4%, 1인가구가 18.4%로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추계됐다.

이에 반해 부부와 자녀가 동거하는 가구는 지난해 말 47.5%에서 2010년 45.5%, 2020년에는 41.5%로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반면 대가족 제도를 의미하는 3세대 이상 가구는 5%미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0년이 되면 인구 고령화뿐만 아니라 독거노인도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1인 가구 가운데 독거노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00년 22.4%였던 것이 2010년에는 33.6%, 2015년에는 36.9%, 2020년에는 40.5%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모의 이혼 등으로 편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는 지난해 말 1.5%에서 2020년에는 1.6%로 늘어난 반면 편모와 자녀가 동거하는 비율은 6.4%에서 6.2%로 조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부연구원은 "고령사회 진입, 가정해체, 이혼율 증가 양상 등이 두드러지면서 부부와 자녀가 함께 동거하는 정상적 가정이 급속히 줄어들 것이며, 그만큼 가정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사회 기본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TV 많이 보면 사춘기 빨리 온다.

TV를 지나치게 많이 보면 사춘기가 빨리 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고 영국BBC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이탈리아 플로렌스 대학병원의 로베르토 살티 교수는 6~12세 초등학생 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TV의 과잉 시청이 체내 멜라토닌 호르몬의 균형을 깨 사춘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티 교수는 부모 동의하에 1주일 동안 조사대상 어린이들의 TV 및 컴퓨터, 비디오게임의 시청을 금지한 결과 이들에서 메라토닌 호르몬이 3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멜라토닌은 어린이들의 성적 성숙을 늦추고 사춘기의 조기 발현을 억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호르몬이다. 그는 "지나친 TV시청이 일부 호르몬을 변경시킬 수 있음을 이번 연구는 시사한다."면서 TV와 컴퓨터 스크린에서 나오는 빛과 방사선이 멜라토닌 호르몬의 생산을 억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 설명했다. 멜라토닌 호르몬은 인체의 내부 시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낮에는 최저치에 머물다가 잠을 잘 준비에 들어가는 저녁 8시경 최고를 기록하며 여행객들이 시차에 따른 피로를 극복하는 데도 이용되는 호르몬이다. 살티 교수에 따르면 보통 여자 아이는 10살, 남자 아이는 11살 6개월 이전에 사춘기의 첫 징후가 나타나는 조숙현상이 서구 국가에서 점점 늘고 있는 상태다.

가임여성 등푸른 생선 주 2회 이내 섭취

가임기 여성들이나 임신부는 연어와 참치, 송어, 청어, 정어리 등을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회까지 먹어야만 한다고 영국 식

품규격청(FSA)이 권고했다. 영국 BBC 인터넷판은 FSA가 1년 여간의 연구 끝에 24일 발표한 '생선 섭취량 지침'을 인용, 이같이 전했다. 그러나 가임기를 지난 여성이나 남성은 등푸른 생선을 1주일에 최대 4회까지 먹어도 좋다고 FSA가 권했다. FSA는 기름기 많은 등푸른 생선 속에는 심장예방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같은 불포화지방산이 들어 있지만 오염물질도 함께 들어 있어 건강에 위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영국인들의 경우 등푸른 생선 섭취량이 평균 1주에 1회에도 못미쳐 3분의1인분 정도만 먹고 있다. 10명중 7명은 아예 전혀 먹지 않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등푸른 생선을 좀더 먹어도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생선에 따라 함량이 다르긴 하지만 이런 생선들 속에서 메틸수은, 다이옥신, PCB같은 독성 화학물질들이 검출되는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런 생선들을 장기간에 걸쳐 다양 섭취할 경우 인체에 축적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성고객이 더 짜다

'사실은 남성이 더 짭다?' 인터넷 쇼핑물 LG이슈이 이달부터 실시한 최저가격 신고제에서 4일간 들어온 신고 4,500건 중 남성 신고자가 무려 60%를 차지해 눈길을 끌고 있다. 평소 LG이슈의 여성 고객 비중이 남성 고객보다 높은 60%인 점을 감안하면 남성들이 훨씬 더 가격에 민감하다. LG이슈의 '최저가격 신고제'는 해당 상품가격이 인터넷 등 국내 10개의 상위 쇼핑몰보다 비쌀 경우 이를 신고하면 해당 고객에게 적립금과 특별 경품을 지급하고, 신고를 받은 LG이슈는 바로 해당 상품가격을 국내 최저수준으로 내리게 되는 제도다. LG이슈 관계자는 "얼굴을 맞대는 오프라인 쇼핑에서는 '짭다는 남성고객'이 많은 반면 온라인에서는 신부노출이 되지 않아 남성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LG이슈의 가격은 지난 6월 한 달간 직원30여명이 3만개 상품을 비교대상 10개 쇼핑몰 사이트에서 일일이 확인해 최저가격을 내놓은 것이어서, 이번에 신고한 남성 고객들은 정말 '폼폼한 쇼핑객'이라는 설명이다.

30세 넘으면 취업 힘들다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채용시 연령제한을 두고 있어 30세가 넘으면 취직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 사이 자사 사이트에 게재된 채용공고

38,947건을 분석한 결과 46.3%(18,039건)가 채용시 연령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제한연령은 31.9세(남성32.2세, 여성26.8세)로 구직자들이 직장을 구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령제한이 취업활동에 발목을 잡았다. 직종별로는 디자인직과 사무관리직의 평균 제한 연령이 각각 28.9세와 29.5세로 낮게 나타났고, 영업직과 서비스직은 33세와 33.6세로 비교적 연령제한을 적게 받았다. 연령제한을 하고 있는 325개사를 대상으로 연령제한 이유를 묻는 조사에서 '상급자 나이 많은 사원을 대하기 불편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3.1%(140개사)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조직에 위계질서 유지 위해'(34.5%), '나이가 많은 업무습득 및 적응이 어려워'(18.7%)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연공서열의 기업문화로 인해 적지 않은 구직자들이 취업의 기회를 잃고 있다."며 "성공과 능력위주의 인사관리 풍토가 자리잡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구 온난화, 쌀 수확량 줄어

지구 온난화가 쌀 수확량 감축 요인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8일자 미국 국립과학원회보는 야간 기온의 상승이 쌀 생산을 뚜렷이 감축시킨다는 논문을 게재했다. 필리핀의 쌀 연구소 농장에서 실험한 결과 야간 기온이 평균 섭씨 1도 상승할 경우 쌀 수확량이 10%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를 이끈 네이브라스카대학의 케네스 카스만 연구원은 농부들의 실제 영농 방식대로 농장에서 실험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노스캐롤라이나대학 원예학과 메리 팻 교수는 지구 온난화 현상을 일으키는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증가가 기온 상승으로 인한 수확 감소요인을 상쇄할 것이라는 기존 가설을 이 연구가 뒤엎었다고 평가했다. 팻 교수는 특히 "특정장소에서 실제 농장처럼 재배실험을 한 결과라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카스만 연구팀은 농장에서 12년간의 재배실험 연구 끝에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17년간의 조사를 거쳐 지난해 발표된 미국 농산물 수확량과 기온간의 상관관계와 유사하다. 지난해 발표된 조사에서 미국의 콩과 옥수수 산출은 기온이 올라가면 줄어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카스만 연구팀은 기온이 올라가면 작물의 에너지가 생체유지에 더 많이 투입돼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했다.

불교 충지종 사회복지 재단은 부처님의 자비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설립취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 사업을 펼치고 이를 통해 소외된 계층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의 공덕'을 실천하여 안정된 사회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

노인복지사업

- 역삼 노인복지센터 운영
- 주간보호 사업
- 만성질환과 기능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양가족과 노인들이 경제, 신체,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
- 재가복지 사업
- 지역의 생활보호 및 저소득 노인을 발굴하고 경제, 정서적 서비스를 통해 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업
- 은빛축제 :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마당
-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 55세 이상 고령자 취업알선

지역복지사업

- 지역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 지역내 소년·소녀 가장 후원 결연사업
- 지역내 독거 노인 후원 결연사업
- 생활보호 대상자 후원 사업



자원봉사 및 후원회 사업



- 자원봉사자 상담 및 교육
- 자원봉사 지원 및 운영
- 후원자 개발 및 관리
- 자원봉사 교실 운영

청소년복지사업



-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
- 청소년 문제 연구 및 상담사업
- 청소년 문화교실 운영
- 청소년 건강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캠프

노인 휴양시설 건립 추진

- 아름다운 노후생활
- 안정되고 체계적인 노후보장
- 납골당 건립 추진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충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은 재단의 사회복지 사업에 소중한 기여가 됩니다.

회원

일반회원 - 월 5천원(17주) 이상 찬조회원 - 일정금액 후원
단체회원 - 단체명의로 월 5만원 이상 특별회원 - 50만원 이상 후원

후원금 납입방법

1. 단체인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지로 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 지로번호 : 7668610
 -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 예금주 : 불교충지종사회복지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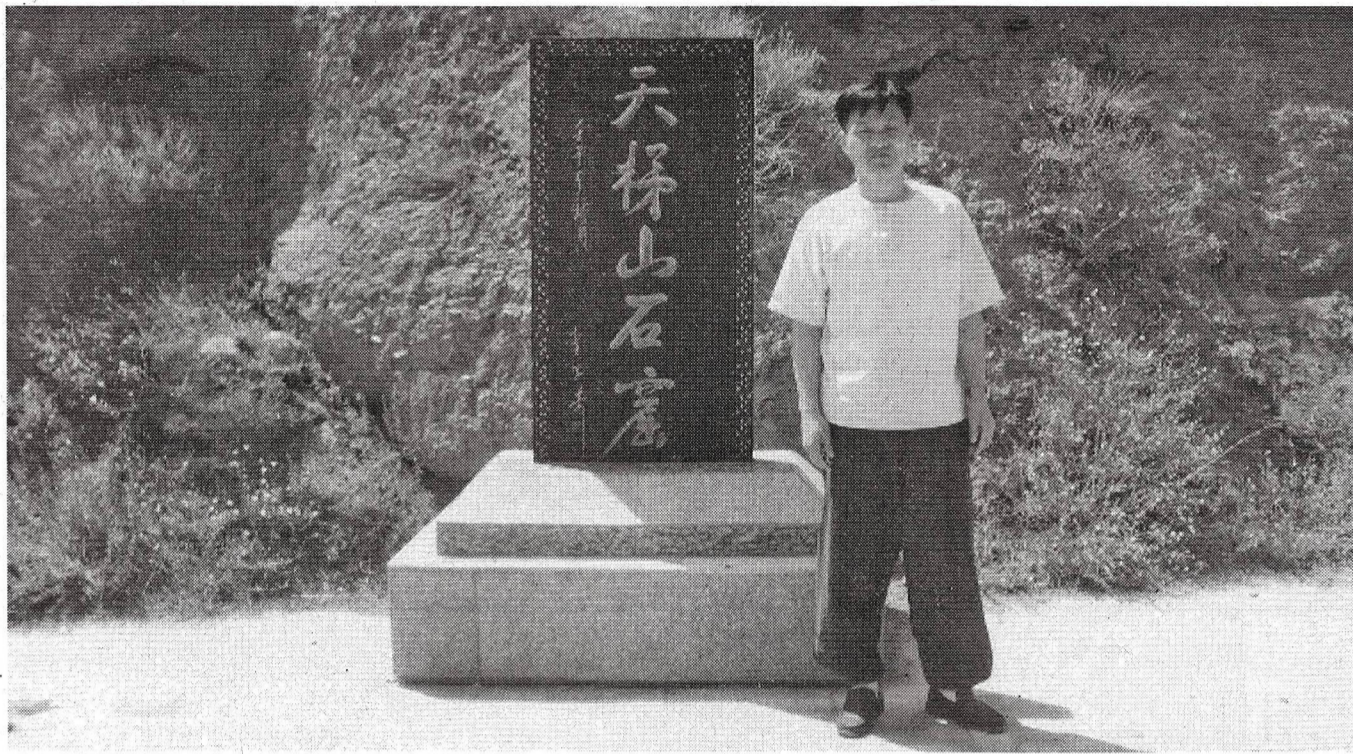
문화기행

중국불교 유입의 길목을 따라

중국 감숙성 불교계를 돌아보며(1)

대작 불사가 이루어지는 역동의 감숙성 불교계

이 글은 법장원 연구원의 화령 정사가 중국 감숙성 불교유적지와 현재 그 지역에서 불교의 역할을 이끌고 있는 중심사찰을 돌아보고 쓴 글이다. 감숙성은 실크로드를 가는 간선도로가 펼쳐져 있는 곳이기도 하며 중국에서 서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인 최초의 땅이다. 이곳에는 불교 전래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수많은 유적들이 남아 있으며, 그 중에서도 돈황 석굴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불교유적지이다. 이 글은 감숙성의 불교 유적과 함께 그곳에서 만난 불교계의 여러 인사들에 대한 느낌을 곁들여 3회에 걸쳐 연재된다.



천제산 석굴 입구에서.

중국불교 유입의 길목-감숙성

내가 불교도전의 초전지라고도 할 수 있는 감숙성을 방문하게 된 것은 전혀 생각지 않던 일이었다. 언젠가는 그곳에 한번 가봐야 하는 생각이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이런 기회가 주어지자 평소 이 곳에 대한 사전 지식을 좀 더 알고 싶었다.

이번 방문의 일차 목적은 나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종단에도 여러 번 방문한 바 있는 중국불교협회 국제부 부주임 보정(普正) 스님의 초청에 의한 것이었다.

보정 스님은 한국에서 유학하고 돌아간 뒤 자기의 고향인 감숙성 난주(蘭州)에 불사를 일으키고자 발원하여 3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보은사(報恩寺)를 건립하여 지난 8월 7일에 낙성식을 가졌다. 낙성식을 전후하여 축하객의 일부를 초청하여 감숙성 불교계를 돌아보도록 배려했는데 그 일행에 나도 포함되었던 것이다.

7월 27일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상해로 해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난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상해 홍공공항에 도착해서 예약했던 난주행 비행기가 취소되었다고 통보받았다.

백 명이 넘는 탑승객들 가운데 키도 크고 체격도 큰 중국 서북방지역 사내들이 큰 목청으로 항공사측과 한 바탕 소란 끝

에 중국 돈 200원을 보상받고 북경으로 돌려서 난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했다. 사람들 말로는 중국항공사들의 이 정도 처리태도는 그래도 전보다는 개선된 것이라고 한다.

난주는 중국 지도를 펼쳐 놓고 보면 지리적으로는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그 유명한 황하 상류가 이 곳을 지나고 있다. 그러나 난주를 성도로 하는 감숙성은 실은 가장 변방 지역이며 낙후된 지역의 하나이다. 건조한 기후로 인하여 대부분이 사막지대이며 생산활동도 미미하다.

이 곳 난주는 인구 300만으로 중국의 서북 지역에서는 서안 다음으로 두 번째 큰 도시이다. 난주는 중국에서는 유일하게 황하가 시내를 관통하여 흐르고 있는 도시이다. 황하는 그 물줄기를 수도 없이 바꾸며 범람했기 때문에 황하 유역에는 도시가 발달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강'이라고 하지 않고 '하(河)'라고 한다는 것이다. 도도하게 흐르는 흙탕물을 보니 우리의 한강이 새삼 고맷게 느껴진다. 도시 한가운데를 압전하게 흐르며 2000만 수도권 인구의 젖줄 역할을 하는 한강! 그런 한강을 우리 스스로 몸살나게 학대하다니 그저 부끄러울 뿐이다.

비행기에서 내려다 본 감숙성은 정말 삭막했다. 황량한 산맥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인가도 보이지 않는다. 벌거벗은 수많은 산들마다 마치 나무의 나이테가 그려진 듯한 모습을 하고 있고, 끝까지마 다 조금이라도 평지가 있는 곳은 개간한 흔적이 있는 것을 보니 저 먼 곳까지도 대체 누가 농사를 지으려 가나 싶었다.

비가 그리 많은 곳이 아닌데 내가 가던 날 마침 난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공항에는 남경 서하사(棲霞寺)불학원 부원장이자 교무장인 이해(理海) 스님이 마중을 나와 있었다.

이해스님은 보정스님과 같이 감숙성 출신으로 같이 공부해서 불학원에 입학하고 공부한 동기이자 친한 도반이다. 반가운 비와 함께 오는 손님이 더욱 반갑다고 나를 맞이해 주는 모습에 무척 호뭇했다. 영성20도인 쌀쌀한 날씨에 놀라자 이 지역특성상 난주는 한 여름에도 비가 오면 출다가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일정의 끝자락에서 가게 될 라부루사가 있는 곳은 비가 오면 매우 추워서 담요도 준비해 놓았다고 한다. 다음에는 한여름에 오더라도 긴 팔 옷을 하나쯤은 가져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지도 않은 쌀쌀한 날씨에 불편할

지라도 불교가 전해 들어온 길목인 이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비가 한 방 울이라도 더 내렸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다. 공항에서 난주 시내까지는 자동차로 한 시간 남짓 걸리는 거리인데 도중에 인가는 거의 없었고 시내에 도착하니 저녁 9시이다.

무위 천제산 석굴의 위용

난주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에 보는 난주 시내에 높은 건물이 가득한 매우 큰 도시였다. 보정스님이 창건한 보은사가 이 큰 도시에 자리하였다니 뿌듯한 마음이 들어서 돈황순례 후 난주로 돌아와서 참가하게 될 낙성식이 기대되었다.

우리는 무위를 향해서 출발하며 가는 도중에 천제산(天梯山) 석굴을 보기로 하고 아침 일찍 미니 버스를 타고 4시간 가량 서북쪽 방향으로 달려갔다. 가는 도중에 보이는 주위 풍경은 끝없이 메마른 산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다.

비행기에서 내려다 본 나이트 모습의 조림을 한 흔적은 민둥산에 한 층 한 층 턱을 파서 4-50센티 정도의 작은 고랑을 만들어 작은 나무를 심고 그 작은 흙에 물기가 고이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하나같

이 말라 있는 모습이 눈으로 보기에는 썩 성공적이지는 못한 것 같았다. 그래도 그 많은 산들을 일일이 사람들의 손길이 닿아서 가꾼 과정을 거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지역정부와 주민들의 노력은 가히 눈물겨운 것이라고 하겠다.

그렇게 널려진 황량한 산 밑자락 이곳 저곳에 뚫어 놓은 동굴이 내 눈길을 자꾸 끌었다. 거의 모든 산에 크고 작은 구멍을 뚫어 놓았는데 듣기로는 햇살이 뜨거운 지역이라 농사를 짓다가 그 안에 들어가 쉬기도 하고 연장들도 넣어 두기도 하는 모양이었다.

그런 동굴이 거의 산마다 있었는데 옛날부터 저렇게 동굴 파는 습성이 있었기 때문에 돈황을 비롯한 많은 석굴이 감숙성에 산재해 있는 것이 아닐지 하는 생각이 든다. 길에서 보이는 산의 대부분이 황량한 민둥산과 메마른 벌판이었지만 간혹 채소나 옥수수밭이 심어진 푸른 논밭이 있는 곳에는 민가가 몇 채 있었다.

또 완만한 산 구릉에 펼쳐진 유채꽃밭은 마치 크나 큰 노란 카페트를 깔아 놓은 듯 지평선처럼 펼쳐진 들판 여기저기에 조각조각 펼쳐진 아름다움도 그 황량한 속에 잠깐 모습을 보였다. 끝없이 황량한 벌판의 비장함이 펼쳐지는 속에서도 지루한 줄 모르고 버스는 앞으로 달려나 갔다.

뜨거운 햇살을 뚫고 4시간 가량 달리니 멀리 눈 덮인 기린(祁連)산맥이 보이고 큰 저수지가 나타났다. 마치 사막 가운데의 오아시스처럼 작은 부락이 보이고 나무들도 제법 있었다. 삭막한 산등성이만 보다가 심심한 녹색을 보니 반가운 느낌이 든다.

건조한 지역에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땅이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질 줄이야. 산비탈에 난 자동차 길을 따라 조금 올라가니 호수 만한 저수지가 나오고 건너편에는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는 삭막한 산

9면 계속



높이 28미터의 천제산 석가모니불좌상. 벽면에 불상을 새긴 다음 진흙으로 표면을 입히고 채색을 했으나 지금은 색이 많이 바랬다.

여성美 한의원

이성미 조선화 원장

여성병(부인병)과 20생리사나와 10년 이상 경험. 여성미 한의원 다양한 치료법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여성병(부인병) 클리닉

- 월경병 :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갱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 생식기병 : 자궁근종, 질염, 냉증, 대하증, 봉루증, 자궁선근증, 요실금...
- 임신병 : 불임, 임신오저(임덧), 임신중독증 등...
- 산후병 :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기능성좌약 요법(자경단, 요실단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비만 클리닉

- 여성 : 자궁 다이어트
- 남성 : 복부 다이어트

☐ 가족 클리닉 - 보양, 수험생 등

*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 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

☐ 진료시간

평○○일 :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주○○말 : 오전 9시30분~오후 4시

점심시간 : 오후 1시~오후 2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육아TV "전문 상담"

한남대교, 신사역3번출구, 신사역1번출구, 도사대로, 점령동, 신한은행빌딩, 지하철도구 1분거리, 일방병원, STARBUCKS, 대성미한의원, 강남역

생체액분석기

자동팔강진단기

조음파

온열전기침

저주파치료기

좌훈욕기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www.women119.co.kr 전화상담 02)545-0072 Fax 02)545-2191

8면에 이어

들이 펼쳐져 있었다.
 저수지를 마주하고 오른쪽 벽에 천제산 석굴로 들어가는 돌 간판이 보이는데 그곳으로 들어가 조금 올라가니 높이 28미터, 넓이 10미터의 거대한 석가모니불상이 벽면에 부조 형식으로 앉아 계셨다.
 좌우로 보현과 문수보살 그 안쪽으로 아난과 가섭존자의 입상이 둘러져 있고 앞쪽 양옆으로 호법신장이 한 분씩 조성된 모습인데 아직은 인공이 그다지 가미되지 않은 이 석굴 앞에 서니 마치 시간이 정지되어 먼 과거의 어느 한 순간 속에 내가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조금은 좁게 모셔져서 마치 좁은 방에 한 식구들이 웅기퐁기 모여 앉은 모습은 이후에 본 다른 석굴에서는 가지지 못한 특이한 느낌이었다. 아마도 주위가 너무 흐릿하고 소음 하나 들리지 않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처음으로 본 석굴이라 인상이 깊었을 것이다.

그 왼쪽으로 절벽을 따라 작은 동굴이 여러 개 보이는데 지금은 사다리나 난간이 없어 올라가지 못한다고 했다. 그리고 저수지를 만들면서 동굴에 물이 찰까봐 동굴의 불상이나 벽면에 그려진 벽화를 떼어내어 감속성 박물관으로 옮겨갔는데 그 후에 보니 물이 그 동굴 높이까지 차지 않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박물관의 유물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 놓아달라고 무위(武威)불교협회에서 반환요구를 하고 있는데 입지가 않은 모양이었다. 한편 훼손된 문화재는 복원하기가 극히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처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개발에 급급해서 소중한 문화재를 파괴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 후진국이란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화재를 돌볼 여유가 없는 국가를 말하는 게 아닌가 싶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천제산 석굴에서 볼만한 것은 거대한 석가모니불 좌상 밖에 없는데 파괴되기 전의 천제산의 흔적이나 몇 가지 유물 등이 입구의 박물관에 사진으로 보존되어 있었다. 이곳 천제산 석굴은 공개된지도 그리 오래되지 않고 교통이 불편해 한 번 찾아가기가 쉽지 않아 우리나라 사람들도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아마 한국 사람으로서 갔다 온 몇 사람 가운데 나도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괜히 뿌듯한 느낌이 들었다. 천제산 석굴은 규모 면에서는 이후에 본 다른 석굴들과 비교하여 별로 크지 않지만 석굴을 조성하기 시작한 초기의 형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소중하며 벽면에 남아 있는 비취색의 물감 흔적들이 1500년이나 지난 지금도 무척 선명하게 남아 있었던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 석굴은 찾아오는 사람이 드물어서 그런지 아직 상업적인 냄새가 그다지 배어 있지 않고 사막 한 가운데의 제법 경치 좋은 곳에 자리 잡아 멀리 는 뒷인 설



무위시의 상징에서 발전하는 중국의 상징이 된 제비를 밟고 있는 청동마

산과 바로 앞의 큰 호수 같은 저수지 물이 내다보이기 때문에 느낌이 색달랐다. 뜨거운 태양이 작렬하고 인적이 뜸한 이곳에서 오직 신심 하나만으로 이렇게 거대한 불상을 정성들여 제작한 옛날 어느 불자들의 마음을 읽는 것 같아 숙연해지

라집사의 재건과 유서 깊은 해장사

무위시에 들어서면 날고 있는 제비를 밟고 있는 청동말(馬踏飛燕)의 동상이 시의 상징처럼 우뚝 서 있다. 그 곳을 지나

참궁에는 이 지역 출신의 명필들의 휘호가 천장이 삐뚤하게 걸려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또 이 곳에는 몽고, 서하, 돌궐 등의 희귀 문자로 씌여진 비석들이 많이 보존되어 있으며 무위시박물관에서도 이 곳을 특히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이곳 문묘에는 3만여점의 문물이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들른 곳은 뇌대라는 곳인데 1969년에 어떤 농민이 방공호를 파다가 뇌대의 너티나무 아래에서 우연히 대형 분묘를 발견함으로써 더욱 유명해진 곳이다. 원래 뇌대는 고대에 뇌신(雷神)에게 제사지내던 곳인데 그 아래에 대형 분묘가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다.
 서기 186년에서 219년 사이에 만들어진 대형분묘에서 온갖 귀중한 부장품과 함께 제비를 밟고 있는 청동말도 발견되었던 것이다.

나는 제비가 말에 밟혀 놀라서 뒤를 돌아보고 제비를 밟은 말은 이게 뭐지? 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약간 기울이고 있는 역동적이고도 유머러스한 장면을 포착하고 있는 이 청동상은 이제 무위시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악동하는 전 중국의 기상을 상징하는 심볼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곳 감속성은 주식이 국수라고 하였는데 과연 그랬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국수만 먹었다. 물국수, 비빔국수, 볶은 국수 등 온갖 국수에 채소를 곁들여 먹었는데 고추 튀긴 것도 많이 나왔다.

깊은 번방 도시 한 복판에 서 있다는 느낌이 특별한 감회를 더해 준다.
 다음 날은 감속성불교협회 부회장이며 해장사(海藏寺)와 라집사의 방장이기도 한 이지(理智) 스님의 초청으로 그곳을 방문했다. 라집사에는 구마라집 스님의 허사리가 봉안된 탑이 있을 뿐이었는데 이지 스님이 발원하여 현재 대규모의 대웅전을 건립하고 있는 중이었다.

장경각을 포함하여 앞으로 건립될 라집사를 축소하여 만든 모형을 통하여 그 규모를 상상해 보니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였다. 이지 스님은 속세 나이로 아직 40도 되지 않았으며 작은 체구를 지니고 있는데 그 원력만은 정말 대단하다. 무위시 한 복판에 관공서를 모두 몰아내고 라집사를 중창하려는 의지를 보니 현대중국불교의 역동성이 느껴지는 듯 하다. 구마라집 스님은 서기 383년에 전진(前秦)의 왕 부견이 대장군 여광(呂光)을 시켜 구자(龜茲)를 공격해 빼앗아 왔는데, 후에 여광이 후량(後凉)의 왕이 되자 수도를 이곳 무위에 세우고 구마라집 스님을 장안으로 모시고 와 국빈으로 대우하며 여러 경전을 번역하게 하였다.

구마라집 스님은 <아미타경>, <성실론>, <중론> 등 경론 74부 380여권을 번역함으로써 중국불교가 획기적 도약을 하는데 일조했다. 중국불교의 물꼬를 틔운 개척자라고도 할 수 있는 구마라집 스님의 허사리가 모셔진 라집사가 건립되므로써 구마라집 스님의 공적을 기리고 후학들이 불교학을 더욱 응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했다.

라집사에서서는 마침 왕생보불(往生普佛) 등의 법회가 있어 참석했는데 좌중, 묵탁, 북 등 여러 가지 법구를 사용하여 법회가 진행되었는데 대단히 요란했다. 신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법회시에 다

양한 법구를 사용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염불과 법구 소리에 맞추어 계속해서 절을 하거나 아니면 상체를 활오킨 채로 꿇어앉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척 힘들었다.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이렇게 많은 신도들이 법당 가득 모여서 장엄한 법회를 거행하는 것을 보면서 남의 나라이지만 같은 불교도로서 흐트러진 마음이 들었다. 중국불교는 젊은 스님들의 주도 하에 거대한 불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거기에 맞추어 정부의 지원도 비교적 원활한 것 같았다.

앞으로 불교도 중국이 다시 중주국의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불교는 이제 사회에 대한 영향력도 많이 떨어지고 젊은 불자들이 양산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불교지도자들이 기득관에 안 만족하지 말고 더욱 활발하게 포교사업을 펼쳐나가는 것을 본분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법회를 마치고 저녁에는 해장사에 초청을 받고 절음식 대접을 받았다. 해장사는 동진(東晉) 시대인 4세기에 건립되었으며 현장스님이 경을 가져온 인도에 가다가 이 곳 해장사에 들어 설법했다고 한다. 원(元)대에는 티벳 불교의 영향도 받았고 명대에는 장경각을 지어 대장경을 보존했는데 지금은 그 대장경들이 무위 문묘에 보존되어 있다고도 한다.
 또 명대에 대규모로 증축되었지만 1927년 지진으로 많이 파괴되었고 또 문화혁명을 겪으면서 대부분이 파괴되었지만 이후 정부에서 계속 지원하여 지금은 옛날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한다.



라집사 주지 이지스님과 함께, 10여 미터의 용을 새긴 '들기둥' 26개가 대웅전을 받치고 있다.

황폐한 지역에 세워진 도시에 푸른 녹음이 우거진 역사 깊은 해장사는 절 안쪽으로 호수가 있어서 물과 나무가 한데 어우러진 아름다운 고찰 모습을 보여주어 그 소중함을 더욱 느끼게 하였다. 사찰의 마당과 전각의 곳곳이 다 스님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마당에 깔린 연꽃모양을 한 벽돌은 스님들이 직접 구워서 바닥에 깔았다고 하고 저녁식사에 나온 가지의 꼭지도 버리지 않고 조리되었는데 방장인 이지스님이 일러주신 방법이라고 하였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사로운 것에서부터 아끼고 소중히 하는 수행자의 모습을 보면서 밝은 중국불교의 미래를 보는 듯 흐트러하였다.

천제산 석굴은 석굴을 조성한 초기의 형태

해장사는 푸른 녹음이 우거진 아름다운 고찰

는 느낌도 들었다.

천제산 석굴 입구에서 사진 몇 장 찍고 차를 돌려 무위(武威)로 향했다. 무위까지는 약 100리 되는 거리라고 한다. 중국이 가로저르고 있으며 도시의 한 가운데에 역경가로 유명한 구마라집(鳩摩羅什)스님의 허 사리를 모셨다는 라집사(羅什寺塔)이 우뚝 서 있었다.
 우선 시내 한 가운데의 무위국제대주점이란 호텔에 여장을 풀고 점심을 먹은 다음 잠깐의 휴식을 하고 무위에서 가장 유명한 곳 중의 하나인 문묘(文廟)와 뇌대(雷臺)를 구경하러 갔다. 이해스님의 사형이자 이 지역 불교계를 대표하는 이지(理智)스님과 친분이 있는 무위시박물관 관장님이 호텔로 오셔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셨다.

문묘는 명나라 때(서기 1439년) 세워진 곳으로 공자를 제사 지내고 많은 문인들이 수학하던 곳이라고 한다. 궁궐의 모습을 본 따 지은 건물은 전체 구조를 대칭으로 배치해 단아하면서도 기품이 있다. 그 중에서도 성묘(聖廟)와 문창궁(文昌宮)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데 특히 문

면 큰 성문이 있고 그 사이를 차가 통과하여 중심가로 들어가게 된다. 주위의 풍광이 무척 고풍스러운 도시라는 느낌을 준다. 시내는 반듯하게 난 도로가 남북을 가로지르고 있으며 도시의 한 가운데에 역경가로 유명한 구마라집(鳩摩羅什)스님의 허 사리를 모셨다는 라집사(羅什寺塔)이 우뚝 서 있었다.
 우선 시내 한 가운데의 무위국제대주점이란 호텔에 여장을 풀고 점심을 먹은 다음 잠깐의 휴식을 하고 무위에서 가장 유명한 곳 중의 하나인 문묘(文廟)와 뇌대(雷臺)를 구경하러 갔다. 이해스님의 사형이자 이 지역 불교계를 대표하는 이지(理智)스님과 친분이 있는 무위시박물관 관장님이 호텔로 오셔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셨다.

문묘는 명나라 때(서기 1439년) 세워진 곳으로 공자를 제사 지내고 많은 문인들이 수학하던 곳이라고 한다. 궁궐의 모습을 본 따 지은 건물은 전체 구조를 대칭으로 배치해 단아하면서도 기품이 있다. 그 중에서도 성묘(聖廟)와 문창궁(文昌宮)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데 특히 문

감속성의 손국수는 중국에서도 가장 유명하다. 같은 국수라도 각기 다른 형태로 만들어져서 눈으로 보이는 모양뿐만 아니라 입 속에 씹히는 느낌이 달랐다. 이해스님은 일제시대 온갖 다른 국수를 맛볼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 식탁에 올라오는 모든 야채로 만든 음식들은 일제시대 내 입 속이 상쾌하고 몸을 가볍게 해주어서 즐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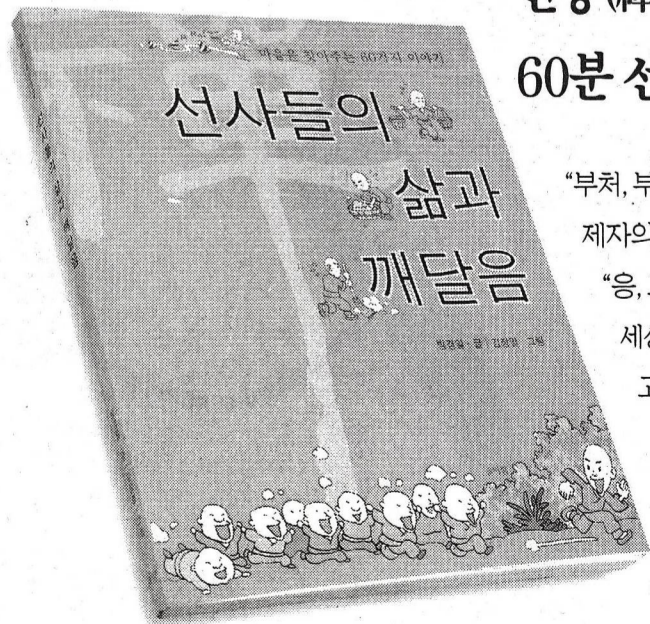
또 하나 신기한 것은 넓은 영토를 가진 중국은 적어도 서너시간이 나는 시차를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동서 끝을 막론하고 전체를 표준 시간을 하나로 통일하고 있기 때문에 서쪽에 위치한 이곳 무위만 해도 9시가 되어야 겨우 평거미가 내려 앉는다.

물론 아침 8시가 되어도 새벽기운이 감도는 것은 물론이고, 어쨌든 10시쯤 되어 어둑어둑할 때 거리를 나서자하니 여름이라 그런지 시민들이 대낮처럼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 바람을 쐬고 있다. 이 지방은 덥다고 들었는데도 건조한 기후라 그다지 덥지는 않았다. 마침 보름이 가까워 둥근달까지 덩실 떠오른 서역의 한 유서

마음을 찾아주는 60가지 이야기

선사들의 삶과 깨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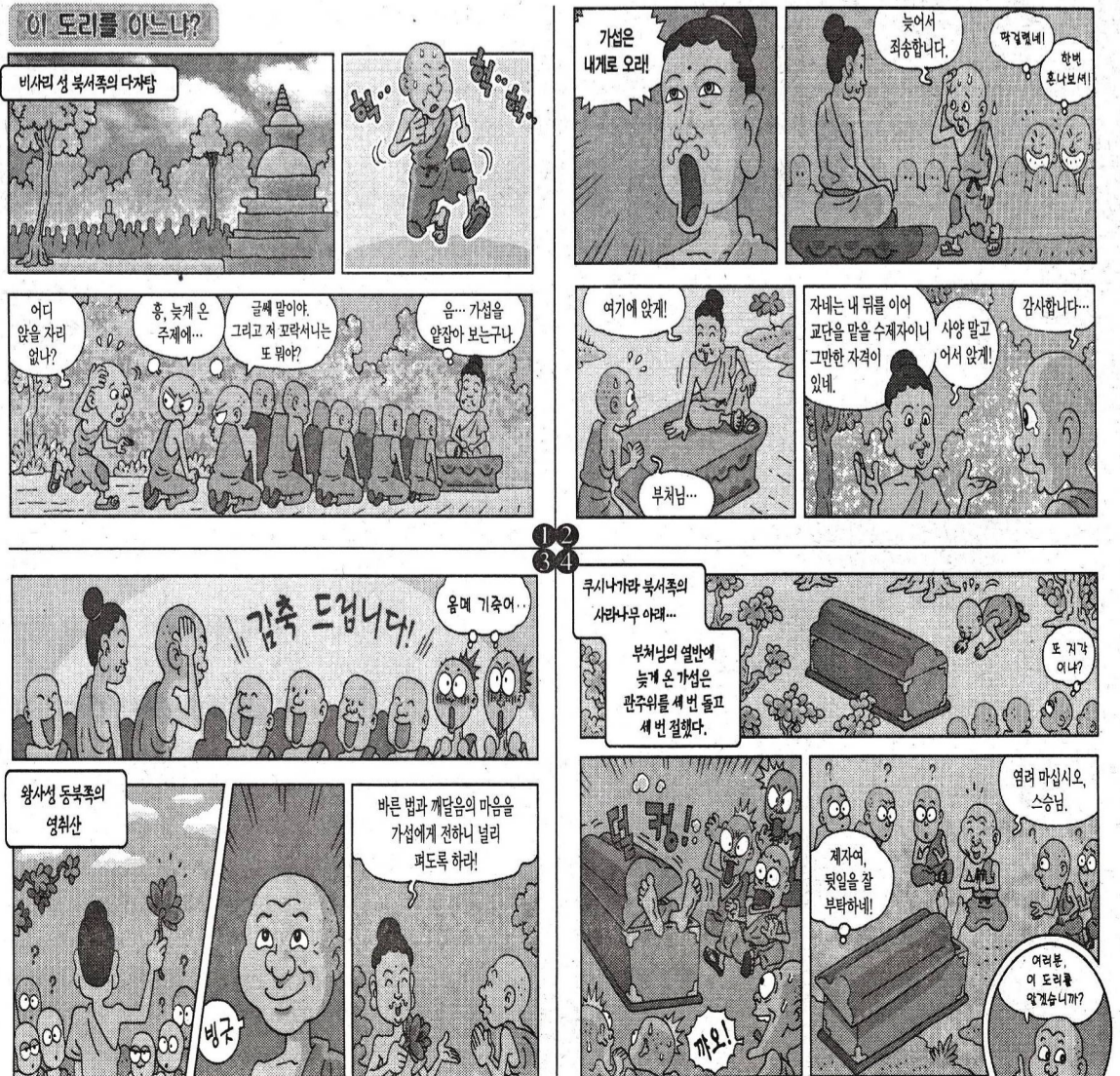
선종(禪宗)의 탄생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60분 선사들의 삶이 여러분 곁에 다가옵니다!



“부처, 부처 하는데 도대체 부처가 뭘니까?”라는 제자의 물음에 어느 선사(禪師)는 “응, 그거 ‘마른 콩 막대기’야!”라고 했다.
 세상에, 우주만물의 본성과 그 작용의 이치를 깨달았다는 고귀한 부처님이 겨우 콩 막대기라니!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망발이 아닐 수 없지만 선사들의 세계에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철하게 일러 준 정확한 대답’으로 통한다.

- 머리말 중에서 -

*수련회, 각종 법회 등 불교행사시 법보시나 법우들간의 선물용으로도 최고!
 *마음시리즈 1권과 함께 구입하시면 불교를 이해하는데 더욱 좋습니다.



아제아제바라아제

어떤 리더십 워크샵

얼마 전 필자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리더십 관련 워크샵에 참여했다. 단체실무 5년차 이상의 중견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해가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자못 기대되는 일이었다. 생각대로 그곳에 모인 분들의 활동영역은 다채로웠다. 정치개혁의 일선에서 활동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유기농 생협운동에 열심인 분도 있고, 그의 참교육, 바른 건강운동, 생태적 환경운동, 간접한 청년운동 등 정말 사회 곳곳에서 변혁운동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들이었다.

정치적으로 압축했던 7~80년대 군부독재지하에서의 민주화운동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면서 90년대 이후에는 정치적인 민주화 이외에도 그동안 경제개발 우선 논리에 가려있던 소중한 사회적 가치들을 재발견하고 확보해가려는 다양한 모색이 진행되어오고 있는 우리사회 시민운동의 현 주소를 두 눈으로 실감나게 확인하는 현장이었다.

그런데 이번 워크샵은 '리더십워크샵'이라는 타이틀이 풍기는 일상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누군가를 이끄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기자신을 이끄는 방법, 즉 상대방이 아닌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살펴보고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워크샵이었다. 그리고 행사에 참여하면서

기 할 것 같아서 불안하고, 또 문제제기 할 것을 뻔히 알면서 무시하고 진행하자니 부담스럽고, 그리고 내 의견대로 처리해도 될 만한 사안인데 담당부서장인 내 의견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자기주장을 내세운 B의 태도에 대해 분노스러웠다"고 대답했다.

진행자는 다시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나는 과연 어떤 신념이 있는 사람인가? 당신은 어떤 사람이죠? 그 일과 관련한 자기 자신을 살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자 그가 잠시 후 "나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진행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세요.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그러자 A는 "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라는 신념이 강하게 있네요"라고 대답했다.

진행자는 "책임감 있는 사람은 정말 좋지요. 그럼, 책임감이 지나치면 일에 대해 어떻게?"라고 물었고, A는 "부담감을 느끼겠지요"라고 대답했다. 이어 진행자가 부담감이 지나치면 어떻게냐고 묻자, A는 일을 회피하거나 분노를 느낄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런 식의 대화와 한참 계속되고 나서 그는 B와의 갈등의 폭이 커진 것이 기질적으로 주저하고 움츠러드는 자신의 성격과 "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기신념이 자신을 지나치게 억눌러서 그 신념이 부담감이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다고 했다.

같은 조정프로그램은 어떤 갈등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조정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에게 가장 정신

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어떤 사건을 객관적인 상황, 즉 그 때 자신이 대처한 방법, 그 때 있었던 감정과 생각을 거리를 두어 살펴보고 그 때 당시 나라고 생각되어지는 모습을 내 스스로 살펴보고 갈등의 원인을 보다 깊은 차원에서 이해함으로써 나로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하는 목적의 프로그램이었다.

이밖에도 삶의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고속버스 안에서 생각에 잠겼다. 욕심과 기대, 의무감 같은 것들을 잠시 놓아버린 때문인지 실존의 밑바닥들이 드러나 보였다.

어쩌면 우리는 내면의 그 깊은 수렁을 직시하기가 두려워 자꾸만 밖으로 향하는지도 모른다. 그 엄청난 번뇌와 존재에 대한 이해불능이라는 현실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자기로부터의 탈출을 끝없이 시도하거나 아니면 일찌감치 패배를 시인하고 마음 편히 살고자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이성이 명료해진 때에는 어느 누구도 그 실존의 굴레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자각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불안과 동요, 혼란에 휩싸여 안정감을 잃고 무기력해지고 만다. 하지만 우리 불자들에게는 그것이 두려움만 하거나 절망스럽기만 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실존의 밑바닥을 직시하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의미의 발전이 시작된다고 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고 그 분이 제시해놓은 해결책들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김선미/인드라망생명공동체 총무국장)

우리는 내면의 그 깊은 수렁을 직시하기가 두려워 자꾸만 밖으로 향하는지도 모른다

어느 누구도 그 실존의 굴레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다

새삼 느낀 것은 이 곳에 온 사람들 대부분이 사회적 리더십을 배우는 것보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더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는 나름대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왔지만 그 과정이 힘들었던 만큼이나 본인들의 내면도 상처입고 지쳐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필자가 참여한 분과는 '갈등조정과정'이었는데 다른 분과도 이와 비슷한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내 안의 갈등, 다른 사람과의 갈등은 누구라도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여서인지 참가자 모두 진지하게 자신의 당면현실을 드러내놓았다.

A는 직장동료 B와의 갈등을 털어놓았다. "저는 모 단체에서 C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직장 동료인 B가 회의에서 C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기주장을 하는 바람에 결국, B의 의견대로 C를 처리하기로 결정되었고 이와 비슷한 일이 몇 차례 반복되었지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B가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보일뿐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B의 주장을 수용했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요."

A가 이와 같이 말하자 분과 진행자는 그에게 "그 때 어떤 감정이 있었죠?"라고 물었다. A는 불안, 부담감, 분노를 느꼈다고 이야기 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고 진행자가 되물자, 잠시 후 그는

"일을 진행하는 사람은 결국 나인데, B가 주장한대로 일을 처리하면 다른 누군가가 문제를 제

교계소식

지율스님 "천성산 살리자" 시민단체 '도룡농소송시민행동' 발족



지율스님의 단식이 52일째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천성산과 지율스님을 살리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룡농 소송인단 100만인 모집을 위해 시민단체들도 나섰다. 78개 시민사회단체 연합인 '도룡농소송시민행동'은 8월 20일 청와대 분수대 앞 지율스님 단식 정진장 앞에서 발족식을 개최했다.

발족식에서 한상렬 통일연대 대상임대표는 "환경영향 평가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대선공약으로 백지화를 약속했던 것이 50일이 넘는 단식의 뿌리"라며 "지율스님이 쓰러질 경우 정권의 운명이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 상황은 매우 긴급하다. 며 청와대의 결단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도룡농 소송 100만인 서명 범불교 운동본부는 8월 18일 서울 우정국로에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금정산 구간의 바른 국책사업 실현을 위한 범불교운동본부

2004 대불련 총동문대회 화합과 단결로 도약의 길

지난 8월 14일 김천 황악산 복지사에서 1박 2일 동안 500여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동문 가족들이 참석해 '대불련 총동문대회 2004'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함께 느끼고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오랜 세월 동안 묻혀 잊혀져간 동문들의 추억을 되살리고, 다시금 한국불교의 젊은 열기를 불어넣어 재도약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41년전 참다운 구도자가 되어 부처님의 법을 이 세상에 구현하고자 대불련을 창립하고 이끌어온 주역들이 다시금 모여 부처님의 평영으로 함께 느끼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이어 두 번째 개최된 대불련 총동문대회 임제식은 명호근 명예회장(쌍용양행 대표이사)의 대회사로 시작하여 지지사 주지자광스님의 격려사, 조계종 포교원

장 도영스님의 법어순으로 진행됐다. 대불련의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고 불교신행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지난해보다 문화행사가 대폭 강화되었으며, 가족동반 동문들을 위해 어린이 여름캠프가 숙박지에서 열렸고, 만덕전에서는 다도회가, 지지문화공원에서 숲속 음악회, 강강수월래, 풍물놀이 등이 펼쳐져 행사에 참석한 참가자들에게 흥겨움과 불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하였다.

또한 대불련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려 내년부터 신생활동상 공사례 발표, 선배들의 역량결집, 재학생들과 함께하는 대회를 마련하기로 하여 대불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동문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후원을 약속하였다.

진각종 '제4회 회당문화축제' 울릉도에서 다채로운 문화행사

진각종(통리원장 효암)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울릉도 전역에서 봉사, 영화, 공연, 체험, 전시마당으로 진행된 '제4회 회당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예년과 비교하여 봉사, 체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미하여 울릉도 도민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특히 가장 큰 호응을 얻었던 부분은 봉사마당과 영화이었다. 봉사마당은 열린사회 소속 전문인들이 참가해 지역주민들을 위해 의료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영화마당에서는 극장개봉작인 '달

마야 서울가자, '타마로우, 슈퍼2'가 상영되었다. 또 공연마당에서는 성인가수 김국환, 편승엽, 임주리의 트로트 한마당과 정태춘, 이정렬씨가 출연하여 축제의 열기를 고조시켰다. 이번 축제에서 주민들은 "앞으로 이런 문화축제가 좀 더 활성화 되어 주민들이 다양하고 신선한 문화를 자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진각종은 '울릉도에 참주회당 순구상 대중사의 성역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수련원과 숙박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천태종 '해외입양인 초청 문화의 밤' 15개국 430명 한국사찰 체험

천태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전은덕)은 지난 5일 서울 관문사 육불보전에서 제3차 세계한인입양인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400여명의 해외입양인을 초청해 '해외입양인 초청 문화의 밤' 행사를 열었다.

이번 해외입양인 초청 문화의 밤 행사는 해외에 입양된 한인입양인들이 가족이나 모국에 대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불교전통의식과 승무를 비롯한 한국의 아름다운 미를 드러낼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했다.

이날 행사에서 천태종 부전스님들의 불교전통 작법무공연, 태권공연과 천태민속예술단의 공연을 펼쳐 입양인들에게 한국을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한편 세계입양인대회는 1999년 미국 워싱턴, 2001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후 3번째 대회로 이번 한국대회는 미국, 독일, 덴마크 등 15개국에서 430여명의 해외입양인이 참가해 입양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세미나와 고국문화체험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불교수행 정신치료 탁월 정신치료학회 심포지엄 발표

8월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정신치료학회(회장 이정국) 창립 30주년 국제포럼에서 경북대 명예교수인 강석현씨는 "정신치료가 되는 길과 보살이 되는 길"이란 논문을 통해 불교의 수행이 정신치료에 탁월하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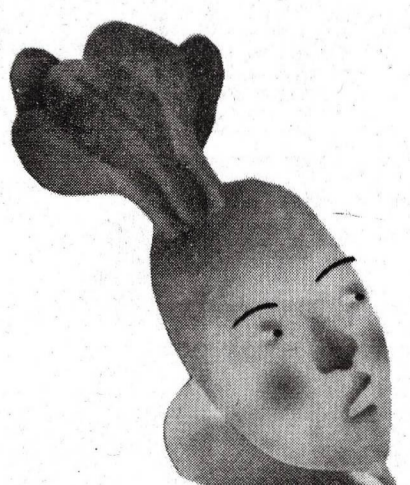
강교수는 "불교수행은 팔정도과 육바라밀을 수행하고 계정혜 삼학을 통해 자아를 돌이켜 볼 수 있는 수행법이 탁월하다."고 밝혔다.

와대 시민사회수석과 만나 해결점을 모색했으나 문수석은 "환경영향 평가 재실시는 사법부에서 관할하는 문제다."라고 원론적인 대답만 해 청와대측의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

14일부터 단식과 목연정진에 들어간 지율스님은 1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천성의 아픔을 기억해 주세요. 지난날 당신이 공약했던 원칙과 약속이 아니었더라면 고향의 냇가에 발목을 적시고 미래를 꿈꾸었던 소녀의 이름으로.. 천성산의 아픔이 제게 빛으로 왔듯이 상처입은 천성은 당신에게도 빛으로 다가갈 것이다."라는 편지를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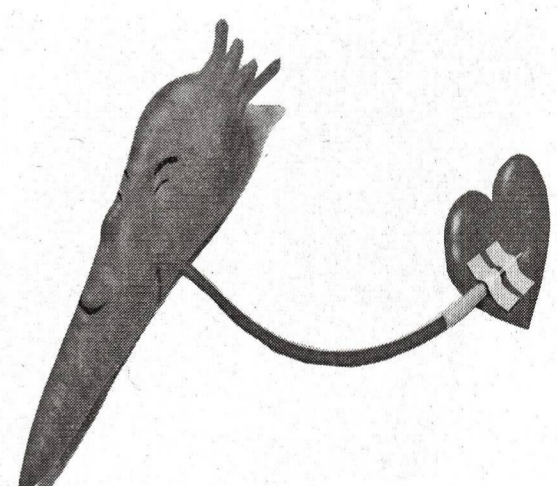
적십자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알버트 A슈바이처-



너 한걸음했니?

선진외국에서는 자국에서 필요로 하는 혈액은 자국에서 해결토록 하는 자국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막대한 외화를 들여서 혈액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당كون이!

대한적십자사

“선사의 민족혼을 본받자”

2004 만해 한용운 문화 축전



한국 근대사를 지킨 민족사이며, 문학을 빛낸 시인이자 한국불교의 대선사인 만해 한용운선생의 입적 60주기를 맞아 그 뜻을 기리는 '2004 만해축전'이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강원도 인제군 만해마을에서 열렸다.

만해사상실천승가회와 강원도, 조선일보의 주최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불교방송 이사장 도

후스님, 불교사 회주 성타스님을 비롯해 신경림, 민영, 유안진, 신달자 등 문인과 이수성 전 총리, 김진선 강원도지사, 손학규 경기도지사, 박세환, 이인재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행사는 법장스님의 타종으로 시작하여 만해대상 시상식, '시조문학의 정체성과 그 현대성'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 만해연구 세미나, 전국고교 백일장, 백담계곡 전국하프 마라톤대회, 학생씨름대회, 시인학교 수료식 등이 열려 지역 최대의 문화축제로 면모를 과시했다.

만해대상 시상식에서 평화부문에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실천부문에 조국평화통일불교회장 법타스님, 문화부문에 소설가 황석영씨,

학술부문에 미국 하버드대 맥캔교수, 예술부문에 임권택 영화감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불교 현실직시, 21세기 대안 마련 제1회 세계교수불자대회

세계교수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교의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동안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연기영)주최로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태국, 몽골, 영국, 호주 등 200여명의 교수불자들이 자라한 가운데 '제1회세계교수불자대회 겸 제3회 한국교수불자대회'가 개최됐다.

'여울림과 나눔의 세상-대화 문명시대의 아시아 문화와 종교'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국제학술회의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아시아, 태평양교수불자연합회 창립대회도 함께 마련됐다.

첫날 '대화문명 시대의 아시아 문화의 종교'를 주제로 진행된 1부 학술회의에서 첫 주자로 나선 영국 런던대 카벨 워너 교수는 "불교는 심오한 사상이나 깨달음을 지향하지만 보다 참여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기조 강연한 일본 소카대학 나카노 쥬요시교수는 "일본 불교로 중도정치를 표방한 공명당을 모델로 제시하면서 불교의 관용과 중도사상이 실천적 의미에서 이루어진 적 없으며 일본불교처럼 현실참여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강연한 건국대 이준명교수는 "과학자들이 명상수행을 통해 어떤 실상의 경계를 들어갈 수 있다면 그들의 연구에서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학술회의는 2부 '종교 문명간의 대화, 3부 '한국불교와 종교문화'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각 분과별 토론회도 진행됐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교수불자연합회 창립식도 열려 연기영 동국대교수가 회장에, 일본 소카대학의 나카노 쥬요시 교수가 수석부회장에 선출돼 불교 지식인들의 본격적인 국제교류 활동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마련됐다.

신행체험 14

부처님의 공덕으로 가정 해탈



윤숙희 보살 <덕화사 신정회 회장>

▶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인연의 법에 의해 불법과 인연을 맺어 수행하게 됩니다. 처음 총지중에 어떻게 입교하게 되었는지?

제가 총지중에 입교하게 된 것은 시누이의 권유에 의해 23년전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편은 직장에 다니고 조그마한 단칸방에서 생활할 정도로 가정형편은 경제적, 정신적으로 아주 힘든 상황이었습니

다. 그래서 가정해탈을 위해 2남 1녀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스승님들의 조언에 따라 열심히 불공을 하였습니다.

▶ 현재 각자님과 보살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구포시장에서 의류업을 하고 있습니다. 1988년 남편은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생활에 대한 회의심을 가져 직장을 그만두고 노점에서 보따리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때는 너무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큰 상가를 가지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 덕화사에서 수행생활을 하시면서 얻은 공덕이 있다면?

제가 절에 다니면서 얻은 공덕이 너무 커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선 가정적으로 모든 식구들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경제적으로 해탈을 이루었습니다.

▶ 각자님과 자녀들은 어떻게 수행생활을 하고 있는지?

처음 제가 절에 다닐 때 각자님은 반대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욕하며 모든 것을 부처님께 맡기고 절에 다녔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지금 이 순간이 오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지금 각자님께서 제일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 지?

현대의 사람들은 남을 헐뜯고, 시기, 질투하며 살고 있으며 모든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에 다니면서 모

든 것은 내가 지은 인에 의해 과를 받고, 남이나 나의 허물을 말할 지라도 신경쓰지 않고, 항상 자신의 허물을 찾아 바르게 고치려고 노력하였으며,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선행을 배푸는 마음으로 생활하였습니다. 이것이 또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부처님의 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가계에서 장사를 하시고, 덕화사 신정회 회장으로서 덕화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어려운 점은?

제가 8년째 신정회 회장을 맡으면서 생활하고 있지만 어려운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덕화사 교도들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바쁜 일정으로 인해 보살들의 수행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지만 보살님들은 불평도 하지 않고 절에서 하는 일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단합된 모습으로 서로 서로 위로하며 생활하고 있어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은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덕화사에서 수행생활을 하시면서 지랑거리가 있으시다면?

우선 대원 정사님은 불교에 대한 역사 및 경전, 교리적인 면에서 공부해 많이 배웠고 불교에 대한 바른 신앙심과 수행방법 등을 가르쳐 주시고, 정인화 전수님은 일상생활하면서 느꼈던 당체법문을 통해 정진하는 방법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불공을 통해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상생활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버리는 점이 있으시다면?

덕화사는 교도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장소가 협소하여 자성일 때가 되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다행히 종단에서도 올해 안에 사원을 신축해 준다고 하여 너무 고마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 사원은 덕화사 교도들이 죽을 때까지 아니 자손손 대대로 마음의 안식을 찾고, 자기를 돌아보는 수행공간입니다.

아름다운 비로자나 공전으로, 불단도 최소한 서울 본원인 총지사처럼 장엄하게 만들어 많은 보살들이 찾아와 수행하는 도량으로 모든 보살님들이 해탈을 이루시기를 서원하는 마음뿐입니다.

나도 한마디

며칠 전 서울에 불일이 있어서 부산역에서 서울행 기차를 타기 위해 플랫폼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위에서 웃음 소리가 아릅답게 들려 쳐다보니 한 가족이 정답게 이야기 하고 있었다.

그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고등학생인 큰 딸과 중학생인 작은 딸이었다. 딸들 중 작은 딸은 뇌성마비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가족들은 작은 딸을 정상적인 아이처럼 서로 서로 장난치며,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어느 가족보다 더 행복해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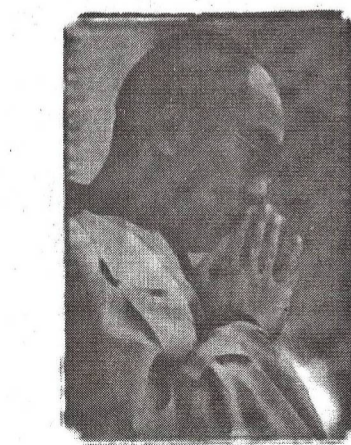
행복으로 가득한 한 가족을 쳐다보며 장애우를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장애우에 대한 편견과 차별성을 무의식적으로 생각했던 나의 사고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기차를 타고 오면서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았다. 부모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육

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아마 "장애우를 가진 가정은 정상적인 가정과 비교하여 불행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정작 장애우를 키우는 가정은 불행이라고 느끼지 않은 채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해보며 행복한 가정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가정이나 가족끼리 서로 서로 위로하고 평등심을 가지며 따뜻한 정과 웃음을 만들 수 있는 가정일 것이다. 이러한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개방적인 자세와 더불어 지식위주의 교육보다 정서적이고 인성적인 자녀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해 보았다.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김정미)

행복한 가정

외로운 가을, 당신의 마음에 달라이 라마의 행복이 밀려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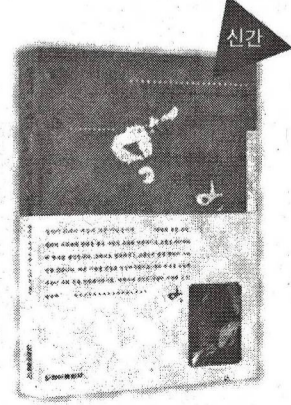


달라이 라마의 아주 특별한 선물

달라이 라마 지음/강주현 옮김 신국판 변형 값 8500원

“ 사랑하는 마음과 연민의 정을 키웁시다!

선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경직하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친구처럼 대하십시오.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충고가 무척이나 간단한 것이지만 이 충고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한결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존재, 심지어 우리에게 악의를 품은 사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통을 두려워하며 행복을 갈망합니다. 그에게도 행복해지고 고통받지 않을 권리가 우리만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진실로 걱정해 주십시오. 우리 친구를 걱정해 주듯이 우리 적을 걱정해 주십시오. 이때서야 진정한 사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달라이 라마가 조금의 가시도 없는 순수한 연민으로 삶의 연륜, 상황, 역할 그리고 감정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팔막한 조언들을 담았다. 그리고 호탕한 웃음까지 터트리면서 달라이 라마의 진심어린 마음을 전하고 있다. 이 책은 바로 살아 있는 부처 달라이 라마가 여러분에게 가슴으로 전하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다.

따뜻한 정이 솔솔 솟아나는 부처님의 자비도량

항상 그림고, 찾아 가고픈 도량,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 비오는 날 허투루 일과를 정리하고 늦은 밤에 찾아가도 반가이 맞이하는 다정다감한 도량, 어머니의 따뜻한 품안처럼 포근한 분위기로 자비행을 실천하는 보살들이 수행하는 곳, 바로 이곳이 부처님의 천국이고, 극락정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청정한 수행도량 덕화사를 찾아본다.

덕화사의 연혁

덕화사는 총기11년(1982년) 부산시 덕천동에 주택을 매입하여 불단을 개설하고 헌공불사를 봉행하여 덕화사로 명명하였다. 그 후 총기14년(1985년) 대지 130평을 매입하였으며, 총기15년(1986년) 전 부지와 합침하여 300여평의 부지를 마련하였다. 총기33년(2004년) 8월에는 신축공사 설계가 마무리 되었으며, 9월 말경 3층의 웅장한 건물로 새롭게 태어날 지진불사를 봉행한 후 부산지역 최고의 밀법도량으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덕화사 초대 주교에는 하정정사와 시각화 전수가 그 후 인법계 전수, 원송 정사, 인덕심 전수가 교화하였으며, 현재에는 총기25년(1996년)부터 대원 정사와 정인화 전수가 주교로 부임하여 중생제도를 위해 옹양정진하고 있다.

평등심은 불법의 핵심

평등심(平等心), 이것은 불법의 핵심입니다. 평등심을 이루면 불법을 증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행자는 언제나 평등심을 유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른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태양이 모든 곳을 두루 비추듯이, 공기가 온 세상에 고루 퍼져 있듯이 부처님의 깨달음은 치우침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차별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완전한 평등만이 존재합니다. 이렇듯 완전한 평등을 이루어야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어떤 가르침보다 평등을 중요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부처님의 이러한 평등사상을 마음 깊이 새겨서 평등한 마음을 회복해 가져야 합니다. 이 평등한 마음을 회복해 가질 때 걸림없는 해탈의 삶은 전개되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몸을 가벼이 움직이지 말라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몸을 가벼이 움직이지 말라"는 경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구의 삼업과 관

계 도와 결합할 수 있었습니까? 승찬대사의 <신심명>을 보면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굴러서 진리와 상응하지 못하고 말을 끊고 생각을 끊으면 통하지 않는 곳이 없나니라."는 경구에서 보듯이 말이라는 것은 겉껍질에 불과합니다. 맑은 결코 알맹이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를 구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많이 해서선 안됩니다.

행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벼이 움직이지 말라'고 하였는데 움직임을 무엇입니까? 변하는 것입니다. 굴러서 변해가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 그것은 곧 생사법(生死法)입니다.

참되고 한결같은 마음자리를 볼 수 있는 진리법(眞理法)이 아닙니다. 진리법은 동요하지 않는 마음자리를 찾고자 노력하고 몸을 정중히 가지며 선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마치 밀이 동그란 항아리와 같습니다. 너무나 동그랄기 때문에 바람만 불어도 항아리는 움직입니다. 일렁일렁, 일렁일렁 대부분의 시간 동안 항아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 속에는 구멍물이 들어 있습니다. 번뇌망상이라는 구멍물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항아리가 움직이지 않아야 할텐데, 끊임없이 움직이니 구멍물 찌꺼기가 언제나 부엌에 떠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항아리, 바로 우리의 몸을 정진수행이라는 빗줄로 풍뎌 묶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정력을 성취하면 찌꺼기는 저절로 가라앉고 위쪽에는 맑은 물만 남게 됩니다. 이 맑은 물에는 모든 것이 그대로 비치게 되는 것이



다. 대중들과 함께 있을 때 편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마음을 평등하게 가져야 합니다.

자경문을 보면 "만약 가깝고 멀리하는 것이 있다면 마음이 평등하지 못하는 것이요, 만약 마음 가운데 미움도 사랑도 없고 취하고 버릴 것도 없다면 어찌 이 몸에 괴로움과 즐거움, 성하고 쇠함이 있으리. 평등성(平等性)중에는 이것과 저것이 없고 대원경(大圓鏡)위에는 가깝고 먼 것이 끊어졌느니라. 삼악도의 고타에서 출몰함은 미움과 사랑에 얽혀 있기 때문이니라. 마음이 평등한 데에 결합하면 취하고 버릴 것이 본래 없나니, 만약 취하고 버릴 것이 없다면 생사가 어디 있었는가?"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러한 평등심이 존재하는 불법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은 공문(空門)이며, 공문을 통과해야만 해탈도를 이룰 수 있습니다. 텅 빈 공문 그 문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평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텅 비어 있는데 귀하고 천한 것이 어디 있었으며 잘나고 못난 것, 옳고 그른 것, 생과 사가 어디 있었습니까? 텅 빈 그곳에는 마음도 중생도 부처도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부처와 중생과 마음을 서로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면 아직 공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우리는 '아누나라삼막삼보리'라고 합니다. 환문으로 번역하면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입니다. '그 이상 평등할 수 없는

런이 있습니다.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삼업 중 말은 생각과 행동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무수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번뇌망상들까지 끊임없이 일으키며 살아갑니다. 수많은 생각들 중 대부분은 그냥 사라지지만, 일부는 말이라는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표출됩니다. 그 표출된 말이 뜻하지 않게 비화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별 생각없이 한 말일지라도 일단 내뱉고 나면 그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마음은 평정을 잃게 됩니다. 곰곰히 자신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불필요한 생각과 말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는가를...

생각이 많고 말이 많으면 실속이 없어 집니다. 번뇌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마음이 고요해질 날이 없습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면 어떻게



며,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행자는 계(戒)·정(定)·혜(慧) 삼학을 이루고 해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탈을 이루고자 하는 이는 몸을 정중히 가지고 말을 절제 하여 울렁거리는 항아리, 동요하는 몸과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간섭하고, 쓸데없는 일에 개입하여 망상을 피운다면 계·정·혜 삼학은 언제 내 것이 되었습니까?

실상인 진리비동(眞相離言 眞理非動) (참된 바탕은 말을 여의었고 참된 이치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이라는 말처럼 항상 마음자리를 찾고 진리를 구하는 수행자라면 언제나 말과 행동을 절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인터뷰

덕화사 대원 정사, 정인화 전수



대원 정사



정인화 전수

▶ 정사, 전수님께서는 총지종의 진리속에서 수행자로서 생활하시다가 교역자로서 중생제도를 위해 불철주야로 수행정진하시고 계십니다. 총지종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지요.

제가 총지종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부처님과 인연에 의해 우연한 기회에 전수님과 함께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엄격한 유교사상이 지배하고 있었지만 부모님들은 불교와 인연이 있어서 절에 다니셨습니다. 저도 또한 학교 다닐 때 절에서 10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불교에 대한 교리공부와 선승들과 선문답을 하며 생활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인연에 의해 지금 교화의 길을 걷고 있지 않나 생각해보니다.

▶ 정사, 전수님께서는 교화방법과 수행철학이 확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도들이 덕화사로 모여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행하시면서 가지고 계시는 수행철학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시지요.

불교는 삶의 길을 인도하며, 어떻게 사고하고 사유하며 바른 생활을 가르쳐 주는 방안을 가르쳐 줍니다. 사고란 습관적인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태해결의 수단을 찾는 정신적 작용이며, 사유는 경험사실을 비교하여 관계를 정하고 미경험 부분에 미치는 정신적 작용을 말합니다.

불교는 자력신앙입니다. 저금통장에 돈을 저금하지 않고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듯이 자기자신이 선업을 짓고, 바른 인을 심을 때 공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남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남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즘 불교를 보면 너무 기복적인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구걸보다는 평등심을 가지고, 청정한 마음으로 탐.치.삼독을 없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 '무엇을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빌기보다는 먼저 자기수행이 앞서야 합니다. 자기의 마음속에는 욕심만 가득 차서 부처님께 빌면 절대 소원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를 버리고 공한 마음으로 수행정진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화는 남을 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교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교화시키지 않고 어떻게 남을 교화시킬 수 있었습니까? 항상 웃는 얼굴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하는 행을 하면 교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혹 아니면 백이라는 극단적인 판단은 버리고 중도의 사고를 가지며 모든 사람들이 수행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신행생활을 할 때 남도 교화할 수 있습니다.

▶ 저희종단은 재가종단으로써 모든 사원들이 도심속에 위치하고, 스승들은 세속에서 가정을 유지하며 생활하고 있는 생활불교를 기치로 내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교라 지칭하면 출가승과 불상, 목탁을 연상하게 되어 처음 총지종에 입교한 사람들은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일반 시민들에게 총지종을 포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지요.

물론 총지종 스승님들이 교화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포교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신감과 긍지를 가지고 교화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교리공부와 수행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항상 공부를 해야 합니다. 현대의 삭막한 현실속에서 교도들이 잠시나마 정신적인 위안을 받고,

행복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은 법당밖에 없습니다. 이들에게 부처님의 정법을 가르쳐 주고 행복과 가정해탈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스승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의 정법을 알리기 위해서는 꾸준히 공부를 하고, 언행이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 스승의 최우선 목적은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한명의 중생을 제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정사님, 전수님께서는 많은 중생들을 교화하여 해탈의 길로 인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중생을 제도하는 방편에 남다른 방편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보면 겉과 속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남에게 이바하고, 아침하지만 속으로는 "언젠가는 너를 넘어뜨릴 때가 있겠지"하는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남이 볼 때는 인자한 척 열심히 일한 척 하지만 남이 보지 않으면 열심히 일하지 않고 나태한 행동을 하는 속과 겉이 다른 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화하면서 있는 그대로를 보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나도 허물이 있을 수 있고, 나도 잘못 판단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남에게 보여줄 때 남이 나를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잘났고 위에 있다.'라는 아상을 버리고 보살들과 똑같은 인간으로 남에게 마음과 행동이 일치된 생활을 하고, 가식없는 생활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원에서 중생들을 교화하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화하시면서 어려운 일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시지요.

저희 종단은 불단과 수행방법에 있어 현교와 다르기 때문에 보살들이 친구를 절에 데리고 와서 그 다음날 보살이 하는 말 "혹시 사비미 종교가 아닌가?"하고 말하며 "두 번 다시 절에 가지 싫다."라고 말했을 때 가장 힘들었습니다.

물론 총지종에서 오랫동안 수행한 사람들은 불상과 불단에 상관없이 옹양정진하여 가정해탈을 이룩한 사람들도 많지만 처음 오는 사람은 첫 느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절에 대해 생소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덕화사는 총지종에서 타 사원과 비교하여 교화가 활성화된 사원으로 많은 보살님들이 수행정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화사가 교화가 활성화 될 수 있었던 것은 덕화사만의 남모르는 비결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비결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교도들의 수가 배로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곳에서 교화하셨던 전임 스승님들께서 보살들에게 정법을 가르치고 올바른 수행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교도들께서 돈독한 신앙심과 교도들간에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자비정신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도와주는 합동심과 상부상조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총지종 교도 및 덕화사 교도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지요.

모든 보살님들이 부처님의 참 진리와 깨달음의 이치를 바로 알아 탐.치.삼독을 버리고 가식없는 바른 생활로 해탈을 이루시길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덕화사 교도들에게는 항상 서로의 아픔을 감싸 안으며 가족같은 분위기로 자비행을 실천하고 인욕하며 옹양정진하여 주시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2동 325-2
전화 : 051)332-8903

